

## 올해 경기도 벚꽃 개화 3월말 부천과 안성부터 시작. 작년보다 3~10일 빨라

###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경기도 주요 지역 벚나무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는 경기도에서는 3월말 부천과 안성을 시작으로 4월초 양평과 여주지역에 벚꽃(양벚나무)이 개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경기도 지역 벚꽃이 평균 4월 11일경 개화한 것에 비해 올해는 3~10일 빨라진 것이다.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는 2월 8일부터 산지에서 직접 꽃눈의 갈색 비늘이 벗겨지는 것을 관찰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벚꽃 개화 날짜를 26일 발표했다.

도 산림환경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3월 마지막 주 안성(서운산), 부천(원미산)을 시작으로 4월 1~2일 부천(무릉도원수목원), 오산(물향기수목원), 안양(수리산), 남양주(축령산), 그리고 4월 8~9일 광주(남한산성), 김포(수안산), 양평(용문

산), 여주(황학산수목원)에서 왕벚나무 개화가 예상된다.

이는 지난 10년간 국립수목원 및 각 지자체 산림환경연구소와 공동으로 수행해온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생물계절 관측 모니터링" 연구를 통해 수집해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길용규 산림환경연구소 나무연구팀장은 "기존 벚꽃 개화 지도에 표기된 개화 시기는 온도 요소 등을 활용한 통계 데이터에 따른 분석이지만, 연구소 자료는 직접 꽃눈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더 정확하다고 본다"면서 "벚꽃은 개화 3일후 만개하는데, 경기도 내 수목원의 경우 4월 초순이면 활짝 핀 벚꽃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개화 시기 발표

## 김영록 전남도지사, 영농철 앞두고 장성호서 가뭄대책 점검

### 물 부족으로 영농차질 없도록 특대책 마련 지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본격적인 영농철이 다가옴에 따라 26일 나주, 함평, 장성 등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장성호를 방문해 가뭄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용수 사전 확보 등 영농에 차질 없도록 특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광주-전남 지역에선 2022년 누적강수량 844mm(평년대비 61%), 2023년 누적강수량 93mm(평년대비 73%)를 기록했다. 기상관측 이래 최악의 상황이다.

특히 도내 저수율의 40.8%를 차지

하는 나주·담양·광주·장성호 등 4대호 저수율은 37.9%로 도내 평균 저수율을 밑돌고 있다.

전남도는 현재 저수율로 5월 모내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5월 말까지 비가 내리지 않으면 6월 영농기에는 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 저수지 물 채우기, 관정 개발, 양수장 설치 등 가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장성군 관계자가 함께해 물관리 현황과 향후 대책 등을 공유했다.

김영록 지사는 "올해는 지난해부터 가뭄이 계속돼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가장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하천용수나 저수지 중 저수율 여유가 있는 지역을 우선 사용하는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정해명/기자

## 경북도 올해 수출목표 500억 달러...수출활성화에 역량 결집

### 수출 유관기관 및 수출기업 13개사와 현장간담회 개최

이달의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27일 경산에 위치한 삼성택 회의실에서 경북도 수출기업 13개사와 유관기관 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외 경제 위기 극복과 수출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세계 경제 부진과 교역 위축 등으로 수출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도내 중소기업이 수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해소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먼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따른 채산성 악화, 원·달러 환율 변동폭 확대에 따른 수출위험 부담 증가, 제품 수출에 필요한 수입원자재의 단가 상승 등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과 대외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미국 등에 자동차 차체 부품을 수출하고 있는 삼성택(경산)의 임용택 대표는 최근 전기차 전환에 따른 글로벌 수요 감소에 대한 지원방안을



건의했다.

경북도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등과 협력해 진행하고 있는 해외시장조사와 미래차 전문 무역사절단 파견계획을 안내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사업구조 개선과 제도약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책을 설명했다.

산업을 펌프를 취급하는 그린텍(구미)의 이장곤 대표는 최근 요동치는 환율 때문에 수출입 대금 결제 시 환차손 등으로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있다고 호소했고, 이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외환위험에 대비하는 안전장치로 환변동보험에 가입해 둘 것을 추천하면서 경북도에서 연간 5백만원까지 수출보험료를 지원한다고 안내했다.

또한 경북도는 정부의 강력한 수출

촉진정책 가동과 한류 열풍 등에 대응해 중소기업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선제적 해외시장 공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당초 해외마케팅 예산 144억원에서 1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에 따라 전시무역사절단 참가와 수출상담회 개최 등 기존사업과 함께 미국, 캐나다, 필리핀, 호주 등에서 경북도 우수상품 판촉전을 6회 정도 신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의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기업들과 의견을 주고받고 삼성택의 자동차 부품 생산현장을 점검하며 "최근 우리 경제의 근간인 수출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으나,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상황을 공유하며 지혜와 힘을 모은다면 극복하지 못할 경제위기는 없다"라고 말했다.

또 "경북도 역시 모든 역량을 결

집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직접 챙기고 해외 영업사원의 자세로 업체와 한 몸으로 땀 뚫 것이며, 연말까지 수출 50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활동의 중심을 경제와 수출에 놓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의 고강도 양적 긴축에 따른 글로벌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2023년 우리나라 2월까지 수출액은 96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0%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경북도는 철강산업이 지난해 태풍 피해에서 복구되고 해외 전기차 시장이 본격화됨에 따라 철강금속 제품과 화학공업 제품 수출이 증가하면서 2월 누계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한 80억 달러로 비교적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윤근수/기자

## 강병삼 제주시장, 양돈밀집지역(한림·상명) 현장 점검

강병삼 제주시장은 3월 24일 한림읍 상명리 일대 양돈밀집지역현장에서 축사시설 현대화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양돈장냄새 저감에 노력하는 농장주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우선 90년대 설치된 노후시설과 현재 추진 중인 현대화 축사(무장화, 악취 포집시설 등) 등 양돈 시설을 차례로 점검하여 농가별 노후시설 개선 및 악취 저감시설 설치 등 축산 냄새 저감 추진 상황을 확인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행정과 생산자단체(한돈협회)공동으로 금년도를 악취저감 원년의 해로 선포(23.3.22. 양돈농가 자정결의)한 만큼 지역주민과

상생을 위해 강화된 축산환경 기준에 맞춰 노후시설 현대화, 농장 내 외부 청결 유지, 악취 저감시설 상시 운영 등 냄새 저감과 환경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더 나은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지원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냄새저감을 위하여 축사시설 현대화 용자지원을 통해 축사개축을 유도하고, 악취측정 ICT 장비를 도입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대응 체계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제주시 양돈규모는 183호·387,792마리(도전체 257호·529,771마리)이다.

곽건/기자



## 거부할 수 없는 유혹, '청송의 맛'

청송의 자연은 순수합니다.  
농부들은 그곳에 '땀과 정성'을 심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청송사과,  
태양과 바람이 키우는 신토불이 청송고추,  
청송농산물의 새로운 다크호스, 청송자두...

산소카페 청송군이 빚어낸 '청송의 맛'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입니다.



# 광주북구의회, 유관기관과 소통행보 눈길

## 관내 10개 유관기관 방문하여 상호협력을 통한 선린관계 구축

광주 북구의회 김형수 의장이 유관기관을 찾아 상호협력을 통한 선린관계를 구축하고 우호관계를 공고히 다지는 등 소통행보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

유관기관 방문은 구민들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우선 주민 안전분야와 관련해서 북부경찰서, 북부소방서, 광주교도소를 방문하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고생

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생활, 교육 분야에서는 북광주우체국, 북구선거관리위원회, 동부교육지원청, 전남대학교를 방문하여 의정활동 방향을 설명하고 기관들의 협조를 당부했으며, 기관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주민을 위한 일이란 의회에서 적극 지원할 뜻을 밝혔다.

이어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북

부지사, 국민연금공단 북광주지사, 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방문에서는 지역현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김형수 의장은 “구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현장 소통을 지속 추진해 주민에게 힘이 되고 북구가 한 단계 발전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병수/기자

# 경북도의회 농수위, 울릉도·독도에서 2023년도 첫 현지확인에 나서

## 독도에서 일본 죽도의 날 조례를 즉각 폐기토록 규탄성명 발표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3월 23일 ~ 25일 3일간, 비회기 기간에 농수산분야 주요사업장에 대한 2023년도 첫 현지확인 의정활동에 나섰다.

24일 오전 울릉도에 하선하자마자 사동항과 울릉공항 건설 현장을 살폈다. 이어서 당초에는 독도에서 추진하고자 했으나 기상여건이 좋지 않아 독도박물관으로 장소 변경하여 매년 되풀이해서 실시하는 일본 시마네현 죽도의 날 행사와 관련 일본 죽도의 날 조례 즉각 폐기와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성명발표와 함께 독도수호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오후에는 울릉도 대표적 농수산 사업장을 방문을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개발한 제품에 대해 추진 현황과 향후계획을 청취하고 현장을 살펴본 뒤 경북어업기술원 울릉·독도지원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올해 초 어업기술센터에서 어업기술원으로 승격됐으며, 울릉지소는 울릉, 독도지원으로 명칭을 개정함에 따라 확대를 포함하는 것으로 업무범위가 확장된 만큼 성장성에 걸맞는 동해안지역 발전방안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2021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울릉도는 2021년 8천867명에서 2022년 8천996명으로 코로나19 등 어려웠던 시기였음에도 129명 증가로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인구증가를 2위라는 희망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의회에서는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남영숙 의원

대표발의)이 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활력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영숙 농수산위원장(상주)은 “도 서지역인 울릉도에서의 인구증가현상이 어촌지역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며, “어촌 원인 중 어촌환경 개선과 해양관광자원화가 잘 구축된다면 경북 동해안지역이 되살아나는 어촌으로 충분히 변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농수산위원들과 더 많이 현장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김기덕 서울시의원, 2022년 서울 자치구 적십자회비 납부율 2배 차이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적십자회비 고지현황 및 납부실적(최근 3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서울 적십자회비 납부율(22.12.31. 기준)이 2021년 평균 적십자회비 납부율에 비해 다소 증가했으나, 2020년 납부율에 비해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김기덕 의원이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적십자회비 현황 및 실적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서울시 적십자회비 총 납부율은 8.01%로 이는 2021년도 서울시 적십자회비 총 납부율인 7.93%에서 0.08%p 증가한 것으로 전년도에 비해 고지금액이 낮아졌음에도 다소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 납부금액이 4억 7천 감소한 수치로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2년 서울시 적십자회비 고지금액은 596억 6천만원이며, 납부금액은 47억 7천여만원으로 8.01%의 납부율을 보임

- 2020년 서울시 적십자회비 고지금액은 667억 6천여만원이며, 납부금액은 57억 4천여만원으로 8.61%의 납부율을 보임

김기덕 의원은 “20년 이후 지속된 코로나 19 상황에서 적십자회비 납부의 감소추세에 걱정이 된 것이 사실이나, 올해 코로나 19 회복 등으로 지자체별 자발적 참여로 인한 국민성금의 일한인 적십자회비에 대한 관심은 물론, 납부율 증대로 인한

변화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적십자회비 고지금액과 납부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향후 고지금액과 납부금액을 끌어올려 시민들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 및 납부의 일상화가 대두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적십자회비 납부에 있어 10여 년간 납부율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8년의 경우 11.11%, 2017년 12.30%, 2016년은 12.60%로 나타났으며, 2012년의 경우 무려 21.7%의 과거 평균 납부율 실적을 나타내고 있어, 2019년에서 2022년 코로나19 인해 기록한 10% 이하의 저조한 납부율 실적이 올해 코로나 회복으로 인해 점차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최근 3년간 자치구별 적십자회비 납부실적을 살펴보면, 2020~2022년 은평구, 도봉구, 노원구 순으로 납부율 상위 3위 안의 자치구로 기록됐는데, 특히 해당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20% 이하(21년 기준)의 하위 5위 안의 자치구로서 해당 자치구일수록 적십자회비 납부금액 및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정자립도 30% 이상(21년 기준)의 부자 동네라 일컫는 강남구, 마포구, 서초구의 경우, 하위 3위 안의 자치구로서 2020~2022년 7.0% 이하의 낮은 회비 납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2년에는 은평구(11.71%), 도봉구(10.36%), 노원구(9.95%)가 납부율 상위 3위 안에 드는 자치구로 기록됐고, 하위 3위권은 강남구(5.8%), 마포구(6.01%), 금천구

(6.71%) 순  
- 2021년도에는 은평구(11.37%), 도봉구(10.69%), 노원구(10.43%)가 납부율 상위 3위 안에 드는 자치구로 기록됐고, 하위 3위권은 강남구(5.53%), 마포구(5.87%), 서초구(6.39%) 순  
- 2020년도에는 은평구(11.65%), 도봉구(11.47%), 노원구(10.60%)가 납부율 상위 3위 안에 드는 자치구로 기록됐고, 하위 3위권은 강남구(6.10%), 마포구(6.30%), 서초구(6.95%) 순

특히, 최근 3년간(2020~2022년) 지자체별 적십자회비 납부 최상위권인 은평구의 납부율과 최하위권인 강남구의 납부율 차이가 2020년 5.55%p, 2021년 5.84%p에서 2022년 5.91%p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치구 간 납부율 차이의 확인한 증가세 및 속도를 최소화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자체별 참여방안 모색이 보다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김기덕 의원은 “서울시는 매년 자치구에 대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나, 적십자회비가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이기에 자치구별 참여도에 따라 납부 실적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며, “회비납부 1위를 기록한 재정자립도 23위에 해당하는 은평구의 경우, 전 자치구별 주민자치회 사무국을 통해 지역 취약계층을 돌보는 다양한 자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자치구별 이웃 주민과 상생하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광수/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식 및 회의 개최

용인특례시의회는 27일 오전 9시 30분 대회의실에서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박정현 수원대 교수, 우성남 변호사, 고찬석 전 시의원, 김광수 용인시 아파트 연합회장 4명이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29조 등에 의거하여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으로 신규 위촉됐다.

기존에 위촉됐던 김영학 용인대 교수, 김선자 명지대 교수, 강창욱 강남대 교수를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위촉식 후 회의를 열어 김영학 용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윤원균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청렴은 공직자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며, 청렴이 곧 힘이고,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근본이다. 올해는 지방의회가 시와 독립적으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청렴제강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 등의 청렴도 평가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게 되는 뜻깊은 해다”며, “용인특례시의회가 전국 기초, 광역 단체를 포함해 더욱



▲ 왼쪽부터 고찬석 전 시의원, 김영학 용인대 교수, 김광수 용인시 아파트 연합회장, 윤원균 의장, 강창욱 강남대 교수, 김선자 명지대 교수, 박정현 수원대 교수, 우성남 변호사

위상을 높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주요자문내용은 용인시의회 의원에

대해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등이다.

조혜영/기자

# 서울시의회, 지방의회 최초 윤정부 강제징용 해법 지지 결의안 발의

## 박환희 의원,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둘러싼 여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윤정부 대일정책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노원2)은 27일 동료의원 59명과 함께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핵심은 윤석열 정부의 해법에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에 걸맞은 대응적 결단이자 한국이 동북아 안보와 평화, 번영을 주도하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담고 있기에 지지한다는 것이다.

결의안은 세 가지 근거를 들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윤정부의 해법이 정당하며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한일 양국은 수교를 맺은 1965년 이래 정부 차원뿐 아니라 민

간분야에서도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있기에 양국 간 굳건한 협력관계는 우리 국익 증진에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한일관계가 새로운 파트너십으로 나아가면, 서울과 도쿄 간의 인적 교류와 정책 협력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이는 동북아 중심 도시 서울의 미래 발전뿐 아니라 서울 시민의 국제적 문화 향유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이 피해자 배상 책임을 거론한 지난 11년 동안 한일 간 협력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제 서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밝힌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양국이 함께 미래로 가야 한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환희 운영위원장은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으면서도 미래의 평화와 번영을 위

해 한일협력을 강화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엄중한 동북아 안보 현실과 미중간 보호무역주의 대결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시민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고뇌에 찬결단을 지지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본 결의안은 4월초로 예정된 임시회에서 상임위 회부와 의결, 최종 본회의 의결을 거쳐 채택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한일협력뿐 아니라 일제 식민지배 청산에도 관심을 기울여온 박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자연문화환경탐사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오는 8월 중국 하얼빈에 있는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방문하고 731부대 한일 마루타 위령비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광수/기자

#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강원도청 신축 시 ‘재난안전센터 홀’ 운영 필요성 강조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는 24일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시(市) 재난구호과(Civil Defence Emergency)를 방문하여 재난대비주요 정책 및 운영 체계 등을 청취하고 강원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접목방안을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간담은 2011년 크라이스트처치 대지진 이후 만들어진 비상운영센터(Emergency Operations Centre) 홀(HALL)에서 이루어졌는데 이곳은 재난발생시 재난안전과 관련된 소방, 경찰 등의 부서간 신속한 회의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곳으로, 위원들이 새로 짓는 강원도청에도 소방본부, 산림청(산불대응담당), 재난안전실, 자치경찰위원회 등의 부서간 신속한 회의가 가능한 ‘재난안전센터 홀’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박기영 위원장은 “강원도는 지형 특성상 대형산불, 태풍, 홍수 등 각종 재해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강원도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재난안전센터 홀’ 시스템 구축을 강원도청 신축시 반영하도록 집행부에 주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전건설위원회는 호주, 뉴질랜드의 재난대응, 소방정책, 도시재생, 대중교통 등에 대한 제도 및 정책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강원도정



에 대한 정책제안과 의정역량 강화 했다. 이를 위해 이번 공무국의출장을 계획

이등원/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대표이사: 박영인, 편집국장: 최재은, 부회장: 박유석, 임석경, 청소년책임기자: 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 02.2612.2959	정치부: 내선 (112)	문화부: 내선 (116)
광고국: 1899.9659	사회부: 내선 (113)	부동산부: 내선 (117)
	경제부: 내선 (114)	오피니언부: 내선 (118)
	스포츠부: 내선 (115)	지방부: 내선 (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제9회 구미 생활체육 전국 오픈 탁구대회 개최 전국 우수 탁구 클럽 및 동호인 800여명 참가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3. 25.(토) ~ 3. 26.(일) 양일간 박정희체육관에서 구미시체육회 주최, 구미시탁구협회 주관으로 「제9회 구미 생활체육 전국 오픈 탁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의 우수 탁구 클럽 및 동호인 800여명이 참가해 단식, 복식, 단체전 부문에서 동호인 탁구 최강자의 자리를 놓고 열띤 경쟁을 펼쳤다.

개인전 단식경기는 남자4~7부, 여자1~7부, 통합상위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복식경기는 남북식·여북식·혼합복식으로 치러졌고, 단체전은 남자단체전·여자단체전·통합상위부로 나뉘어 경기가 진행됐다.

'구미 생활체육 전국 오픈 탁구대회'는 매년 우수한 클럽 회원들이 다

수 참가해 수준 높은 경기와 긴장감 넘치는 경기를 통해 상호간 실력 향상과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하며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시는 탁구 동호인 클럽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도시 중 하나"라고 말하며, 전국 최상의 체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생활체육 종목의 활성화와 체육 인프라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미시는 4. 6.(목) ~ 4. 16.(일)까지 11일간 「제69회 전국농구대회」, 「제29회 대한탁구협회장기 전국생활체육탁구대회」를 개최해 전국 탁구인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그 열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동현기자

## 서울시 올림픽공원 안한성백제박물관에서 느끼는봄의정취,사계콘서트 `봄` 개최

한성백제박물관, 따뜻한 봄을 맞이하여 감미로운 클래식 공연 선사

한성백제박물관은 문화예술단체의 재능기부 공연인 '한성백제박물관 사계콘서트 봄'을 개최한다. 사계콘서트는 지난 2016년부터 이어 온 시민을 위한 무료 음악행사로 박물관 대표 문화행사이다.

매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에 맞추어 다양한 장르로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선율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음악을 즐기는 어린이 동반 가족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성황리에 운영 중인 사계콘서트는 벚꽃과 개나리가 만개한 완연한 봄을 맞아 계절을 음미해보는 감미로운 음악을 시민들에게 전할 예정이다.

사계콘서트 `봄`은 4월 8일부터 5월 20일까지 더피아니시모 음악예술학회, 루시올 앙상블, 클래식 뮤직 페어라인, 더 브람스 트리오 4개 문

화예술단체가 1회씩 공연한다.

더 피아니시모 음악예술학회는 4월 8일 '사랑의 세레나데'를 주제로 사계콘서트 `봄`의 시작을 알린다. 모두가 사랑하는 모차르트, 슈베르트, 엘가 등 다양한 음악가들의 세레나데, 사랑, 봄 등의 여러 곡을 피아노, 첼로, 바이올린으로 어우러진 다채로운 하모니로 만나볼 수 있다.

루시올 앙상블은 4월 22일 '친절하게 읽어주는 토크 콘서트'를 주제로 피아노, 첼로, 바이올린, 콘트라베이스의 솔로부터 콰르텟 연주까지 선보인다. 생상 - 동물의 사육제 중 백조부터 영화 하울의 움직이는 성 OST 매들리와 같은 다양한 스펙트럼의 멋진 곡들을 선사할 예정이다.

클래식 뮤직 페어라인은 5월 13일 '온 가족이 함께하는 피아노로 추

추는 동화 이야기'를 주제로 동화해설과 함께 피아노 듀오를 들려준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 엄마 거위 이야기 등 흥미로운 동화로 이루어져 어린이에게 친밀하게 다가가는 클래식 공연을 연준다.

더 브람스 트리오오는 5월 20일 '봄 노래'라는 주제로 관람 가족이 즐거움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공연을 펼친다. 젓가락 행진곡, 뮤지컬 레미제라블 OST 등을 플루트, 클라리넷, 피아노 트리오로 공연하여 사계콘서트 봄의 막을 내릴 예정이다.

본 행사는 사전 예약자 250명만 입장 가능하다.(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누리집(사이트)에서 예약)

위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성백제박물관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교육홍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광수기자



### 제4기 경기외국인 누리소통망(SNS)기자단 30명 모집

경기도 제4기 경기외국인SNS기자단 운영, 기자단 30명 모집

경기도가 외국인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누리소통망(SNS)으로 제공하는 '제4기 경기외국인 SNS기자단' 참여자를 모집한다.

'경기외국인 SNS기자단'은 2020년 3개 언어에서 시작해 현재 5개 언어의 결혼이민자, 노동자, 유학생이 참여해 국내 외국인주민들에게 국내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오고 있다.

도는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캄보디아어·태국어 등 5개 언어 30명의 기자단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자단은 4월 중순 발대식과 교육을 거

쳐 올 연말까지 국내 외국인관련 주요정책, 생활정보, 고정소식, 지역축제·행사, 실시간 지역소식(교통·재난재해·기상상황) 등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해 기사로 작성한다. 또 작성한 기사를 공식 블로그와 누리소통망을 활용해 홍보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지원자격은 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캄보디아어·태국어 5개 언어권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외국인주민으로 한국어 소통이 가능하고,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누리소통망(SNS) 활용 능력을 갖춘 자라면 신청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외국인주민은 경

기외국인 SNS기자단 공식 블로그에서 지원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4월 2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모집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면 된다.

연중의 경기도 외국인정책과장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외국인주민들이 경기도정의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라며 앞으로도 외국인주민들과의 소통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 상주시, 찾아가는 지적민원처리반 운영 및 군사시설유치 캠페인 등 전개

상주시(시장 강영석)는 지적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지적민원처리반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월 21일 함창시장을 시작으로 3월 6일은 공성시장에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고, 3월 24일 은척시장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지적민원처리반 및 대구시 군사시설 유치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찾아가는 지적민원처리반은 매월 1~2회씩 행복민원과 민원담당 공무원과 지적담당 공무원 및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들로 구성되어 토지행정 관련 전반에 대한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주민들의 건의 사항 등을 현장에서 접수받아 해당 부서로 통보하는 등 주민들로부터 시정에 대한 신뢰와 이해를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용덕 행복민원과장은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지적행정 서비스 및 인구증가 캠페인, 대구시 군사시설 통합이전 유치 홍보 캠페인 등을 지

속적으로 운영하여 민원인 편의증진과 함께 대민 행정서비스 질 향상과 시정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주 화동면(면장 함희중)은 3월 24일 금요일 10시 신의터재 정상에서 24개 읍면동 새마을지도자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대구 군사시설 통합이전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번 유치 활동은 지방소멸 극복과 직결된 상주시의 인구 10만 회복과 낙후된 지역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마중물이 될 군사시설 통합이전 유치의 당위성을 알리고자 추진되었다.

함희중 화동면장은 "상주시는 대구 군사시설 통합이전을 위한 군사적·교통적으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지역이며, 화동면 차원에서도 유치를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이곳에서부터 군사시설 통합이전 유치를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 서울시 최초...영등포구, '체험형 과학교육 학습 지도서' 저작권 등록

영등포구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선도적인 과학교육 기반을 빠르게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15일 서울시 최초로 체험형 과학교육 학습 지도서인 '체험탐구 기반 과학 교육과정 로드맵 개발서'를 저작권으로 등록했다.

구는 2월 24일에 서울시교육청과 손잡고 과학교육 특별구 조성 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4월부터는 예산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35개교(초등 23개교, 중등 12개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과학원리 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과학원리 체험교실'은 기존에 교육경비 보조금 형태로 학교를 지원하던 방식과 달리, 구가 직접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과학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한 것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영등포구 청소년을 미래창의융합 인재로 양성하는 데 기여한다.

이에 구는 서울시 최초로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체험탐구 기반 과학 교육과정 로드맵 개발서'를 제작했다. '체험탐구 기반 과학 교육과정 로드맵 개발서'는 '찾아가는 과학원리 체험교실'의 학습 지도서로 활용되며, 총 두 권(초·중·고 학생용, 중·고 학생용)으로 편찬됐다.

'체험탐구 기반 과학 교육과정 로드맵 개발서'는 과학 교과과정을 체험·실습 위주의 커리큘럼으로 구성한 점에서 의미가 크며, 국립과천과학관의 '이동형 과학원리 체험 콘텐츠 80종' 등 교구를 활용한 스템(STEM) 교육을 실현하도록 설계됐다. 스템(STEM) 교육은 과학기

술 지식에 인문학적 소양을 더해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융합형 인재 양성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구는 국립과천과학관과 협의를 통해 지난 15일 '체험탐구 기반 과학 교육과정 로드맵 개발서' 초등학교용과 중학교용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으로 등록했다. 이를 통해 구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교육 플랫폼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서울시 최초로 체험형 과학교육 학습 지도서를 저작권으로 등록하고 차별화된 과학교육 플랫폼을 조성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추후 학습 지도서를 관내 교육 시설에 널리 전파해 과학에 대한 학생들의 공감과 흥미를 높이고 차세대 미래 교육의 메카, 영등포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힘써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박황신기자

### 경기도교육청, 우수 공공건축물 조성과 가치 향상을 위한 설계 공모 작품집 발간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시설 사업 설계 공모제도의 일환으로 제2호 '경기도교육청 설계 공모 작품집'을 전자문서 형태로 발간했다.

교육시설 사업 설계 공모제도는 우수 공공건축물의 조성과 가치향상을 목적으로 학교, 체육관, 직속기관 등 도내 교육시설의 신·중축 사업에 공개경쟁 방식으로 설계안을 공모하고 선정하는 제도다.

이번 작품집은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했다. 제1호 설계 공모 작품집은 현재까지 21만 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해 건축 관련 분야 학생을 비롯해 도민들에게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작품집의 주요 내용은 ▲2022년 프로젝트별 도내 설계 공모 당선작 소개 ▲공모 당선작 심사평·주요 계획 ▲평면·입면 계획안 등으로 구성했다.

조혜영기자

도교육청은 전국 교육기관 최초로 설계 공모 전 과정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 가격경쟁보다 디자인경쟁으로 질 높은 설계품질 확보를 목표로 삼아 공공건축물의 가치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써 왔다.

또한 매년 설계 공모 작품집을 제작해 건축에 관심이 많은 학생·일반인에게 교육시설에 대한 관심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도교육청 이현주 시설후장은 "이번 작품집은 도내 교육시설 발전 과정과 특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며 "교육시설 설계 공모 운영을 통한 학교 설계의 최신 경향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꾸준히 축적, 공유하며 우리 교육청만의 특색 있는 교육시설과 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오산시 대규모 지진 대비 '토론 훈련 실시'

오산시는 24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대규모 지진 대비를 위한 지진 토론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지진 토론 훈련에는 안전정책과 및 협업부서, 오산소방서, 오산경찰서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지진 토론 훈련은 지진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상황 전파 및 시민 대피, 지진 대응을 위한 토론 훈련과 지진 발생, 초기대응, 비상대응, 수습, 복구 및 향후계획 순서로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지진 발생 시 각자의 역할 및 임무를 확실히 숙지하고 부

서 및 유관기관별 협조체계를 구성함으로써 대규모 지진 등 유사 상황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재 오산시장은 "지난 2월 튀르키예 지진과 관련하여 이번 지진 대비 토론 훈련은 신속한 초동 대처와 관계 부서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점검하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 앞으로도 매년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으로 재난 발생 시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양시현/기자

### 시흥시-서울대, 스누융합과학배움터 입학식 열어... 창의융합인재 양성 기대

시흥시가 서울대와 함께 추진하는 '서울대 사범대학 부설 스누융합과학배움터(이하, 스누융합과학배움터)'의 2023학년도 사사과정 입학식을 지난 25일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개최했다.

시흥시와 서울대학교는 올해부터 기존 과학전문교육 '시흥영재교육원'을 '스누(SNU)융합과학배움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개정 교육과정과 맞춰 과학에 관심을 갖고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사사과정'은 시흥시 중학생을 대상으로 서울대 교수 및 연구진이 직접 강의하고 탐구하는 교육으로 과학, 수학·정보, 융합 등 총 3개 분과로 나뉘어 오는 12월까지 서울대 시흥캠퍼스의 과학탐구실에서 교육이 이뤄진다. 2023학년도 사사과정에는 지난해 말 서울대 교수진의 심층

면접을 거쳐 선발된 총 66명의 학생들이 참여한다.

'스누융합과학배움터'는 '사사과정' 외에도 ▲중 1~2학년이 사사과정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이공계 맛보기탐구' ▲고 1~2학년이 여름방학 일주일간 서울대 교수, 석박사생과 함께 프로젝트 연구를 진행하는 '이공계 창의융합진로캠프' ▲고교생들과 함께 과학자들의 현장 이야기와 Q&A를 나누는 '생생 진로특강' 등 다양한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고미경 시흥시 평생교육원장은 입학식 축사를 통해 "서울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교육협력사업을 통해 더 많은 시흥시의 학생들이 수준 높은 교육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K-교육도시 시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우용/기자

### 부천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적극 지원합니다'

부천시는 지역 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해 1월 3일부터 공동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부천시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은 부천시와 3개 경찰서(소사·원미·오정)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학대예방경찰관·상담사·통합사례관리사를 배치해 근무하도록 했다.

공동대응팀은 학대예방경찰관·상담사·통합사례관리사가 112로 신고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초기상담을 진행한 후 상담내용을 토대로 ▲피해자가 호소하는 문제들에 대한 개입 ▲현재 폭력의 원인이 되는 상황 해소 ▲현실적인 욕구 해결 등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가정방문 ▲

복직지원 지원 및 정보제공 ▲지역 전문기관으로 연계 ▲법률상담(무료 법률 서비스 제공) ▲임시숙소 ▲민간상담소 연계 등이다. 지난해 공동대응팀에서 지원한 피해대상자는 총 2,947명이다.

특히 법무부에서 법률상담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의 경우, 매주 1회 방문해 평균 6명에게 현장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조용의 부천시장은 "부천시의 전문가들이 모인 공동 대응체계를 통해 후유증이 심각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후속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용민/기자

### 안양시, 저소득 1인 가구 청·장년 생필품 전달식 개최



안양시는 지난 23일 시청 정문에서 저소득 1인 가구 청·장년 생필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을 주관한 안양시와 안양시나눔운동본부는 LS그룹의 후원을 받아 '독독, 안부박스-생필품 지원사업'으로 관내 저소득 1인 가구 청·장년(만 19~64세)에게 필요한 생필품 박스 492개(3천만원 상당)를 마련했다.

생필품 박스에는 즉식 조리식품, 세제, 치약, 건강보조식품 등 다양한 생활용품이 담겼다.

안양시·나눔운동본부는 이달 30일까지 생필품 박스를 31개 동 지역사

회보장협의회 위원을 통해 492명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대상자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 생활 불편 사항 등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1인 가구 증가로 이웃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가 매우 중요한 시대"라며 "나눔 문화와 복지 안전망을 확대하는데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LS그룹은 2019년부터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금 1억원을 안양시에 기탁해왔다. 지난해 기부금을 통해 안양시수어터역센터 등 15개 복지시설에 기능보강 사업이 추진됐다.

신우용/기자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비롯한 수원시 공직자,탄소중립 실천서약

### 일회용품 사용자제, 대중교통 이용하기, 재활용 분리배출 등 내용 담아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한 수원시 공직자들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것을 서약했다.

이재준 수원시장, 조정식 제1부시장, 황인국 제2부시장과 수원시 4급 이상 간부 공무원은 27일 이재준 시장 집무실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서약했고, 모든 공직자도 서약서에 서명했다.

공직자들은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 최소화하기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대중교통 이용하기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 하기 ▲주변 사람에게 탄소중립을 실천하도록 안내하기 등을 실천할 것을 서약했다.

'탄소중립'은 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늘려 실질적인 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수원시는 지난 15일 수원시청과

영통구를 시작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릴레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두 달 동안 4개 구청, 사업소와 공공기관에서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모든 공직자가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해 '깨끗한 생활특례시' 만들기 앞장서겠다"

며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이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민간에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혜영/기자

## 이천시, 축제의 반란 이천도자기축제!! 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이자 국내 유일 도자산업특구 도시인 이천시는 2023년 제37회 이천도자기축제를 2023년 4월 26일부터 5월 7일(12일간) 이천도자예술마을(에스파크)과 사기막골 도예촌에서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37년 역사의 이천도자기축제 전환점이자 새로운 축제 패러다임의 시작이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종합축제, 도예인이 참여하고 주도하여 만들어가는 축제, 축제공간 집적화로 방문객 편의도모 및 축제분위기 조성을 중점으로 꾀했다.

이천도자예술마을(에스파크) 중앙 회전교차로를 중심으로 양쪽 일직선 도로(750m)에 240여개 공방의 아름다운 도자기 퍼레이드 쇼가 펼쳐지는 판매ZONE, 그 주변에 체험ZONE, 공연ZONE, 푸드ZONE, 전시ZONE을 조성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다.

판매ZONE은 도자기세일판매를 중심으로 마임공연, 도자기게임,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방문객의 발길을 잡을 예정이다.

체험ZONE에서는 도자기축제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전통도자문화(물

레, 흙빚기, 장작가마 불지피기, 화덕빵가마 불지피기, 물레시연)체험과 키즈놀이터(에어바운스, 트램폴린), 지역특산물홍보관, 푸드트럭이 구성됐다

공연ZONE도 판매존 옆에 임시무대를 만들어 방문객이 항상 음악과 함께 축제를 즐길수 있는 상시공연을 준비 중이다.

그 외에 공연존에서는 4월29일 이

천도자기축제기념 제2회 전국사진촬영대회가 개최되며, 축제 운영본부, 의뢰지원센터, 임시경찰서·소방서, 물품대여소 등이 위치하게 된다.

또한, 이천도자예술마을(에스파크)내 먹거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푸드ZONE에서는 이천세마을지회, 이천시여성단체협의회 등에서 방문객을 위한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먹

거리부스, 20여개 체험부스와 모래놀이장, 한국도예교 전시홍보관 등이 준비 중이다.

그리고 전시ZONE에서는 명품도자명장기회전, 이천도자기테이블예전, 디지털기술융합관을 만들어 전통도자기에서 일상생활자기 전시, 3D프린팅 시연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그 외에도 학암천과 회전교차로에 튼튼 봄꽃밭, 야간조명장미 포토존, 제10회 이천세계문화축제(5월 5일)가 야외공연장 개최될 예정이며, 도자제품 구매고객을 위한 다양한 행사, 이벤트도 준비 중이다.

이번 축제장은 불거리, 길길거리, 먹거리, 포토존, 곳곳의 힐링 휴식공간으로 가득한 하나의 놀이공간이 펼쳐질 것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축제가 침체된 도자산업을 활성화하고 이천이 매력적인 문화관광도시로 나아가는 큰 축이 될 것이며, 축제 방문객에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축제의 모든 요소를 빠짐없이 즐길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방문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성윤/기자

## '해외 선진행정 배우자' 하남시, K-스타월드 조성사업 등 아이디어 모색

하남시가 해외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통해 K-스타월드 조성사업의 외국인투자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시정 곳곳에서 혁신행정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해외 선진행정 벤치마킹은 유수의 선진 도시정책을 학습해 하남 시정에 적용하려는 이현재 시장의 시정 철학에 따라 중점 추진된 것이다. 앞서 이 시장은 중소기업청 청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세계 일류 중소기업 성장의 토양을 마련한 독일을 방문,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벤치마킹한 바 있다.

26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청 공무원 24명은 지난해 일본과 싱가포르 2개 나라를 대상으로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도시전략 △평생교육 △교통건설 △안전도시 △자치행정 △도시환경 등 6개 분야의 성공사례를 분석했다.

문화와 교육이 살아 숨 쉬는 하남...K-스타월드 조성 해법 모색 먼저 하남시는 도시전략분야 발전을 위해 지난해 12월 싱가포르의 관광 휴양지인 센토사섬을 방문했다. 특히 섬 동쪽 끝에 위치한 '센토사 코브'에 한해 외국인 토지소유를 허용, 외국인투자활성화를 도모한 점에 주목, K-스타월드 조성사업을 위한 외국인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평생교육분야에선 도서관 특성화 공간 구성 등을 견학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싱가포르를 찾았다. 하남시는 센토사섬 전경이 보이는 하버프론트 도서관의 열람공간이 선베드가 비치된 이색공간으로 꾸며진 것에 착안, 2025년 준공 예정인 하남시어린이도서관에 대해 자연환경을 활용한 특성화 공간으로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하는 도시...하남형 스킨십 운영 아이디어를 얻다

교통건설분야에선 지난해 11월 일본 교통시립 기누가사 초등학교 등을 방문, △등교시간 차량 통행금지 △지그재그 운행 유도 통한 속도 저감 등의 교통안전 사례를 참고, '하남형 스킨십'에 반영해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다.

안전도시분야 발전을 위해 하남시는 지난해 11월 마리나 베이 인공섬에 지어진 인공 저수지인 '마리나 배라지'를 방문, 물이 잔잔한 저수지에서 카약 또는 드래곤 보트 경주와 같은

수상 스포츠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다.

'세계 속의 하남' 도시브랜딩...전문 홍보실 운영 방안 탐색 하남시는 자치행정분야에서 지난해 12월 도쿄도청과 고토구청·주요정책 안내 책자를 비치한 전문 홍보실 운영과 대형 터치스크린을 활용해 민원 안내를 돕는 시스템 구축 방법 등을 경험하고 시정반영 방안 등에 대해 구상 중이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분야에선 지난해 11월 일본 오사카 야경 투어 코스가 돋보이는 '도톤보리'의 특색있는 건축물과 야경경관 개발 과정을 학습, 특화지역 지정을 통한 지역 관광자원의 활용성 증대 방안 필요성을 모색했다.

올해 유럽·오세아니아 8개국 탐방...유럽 신재생에너지 우수사례 분석 하남시는 올해 자체 추진 연수로 '2023 해외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진행한다. 직원 20명은 5개주로 나눠 유럽·오세아니아 2개 대륙, 6개국으로 탐방을 떠난다.

실무진은 오세아니아 대륙을 방문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며 변화된 현지 도시관의 운영전략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고 유럽에선 도시재생과 신재생에너지 및 선진 도시경관 등 도시기반시설 우수사례를 분석한다.

박강호/기자

### 안성 남사당 상설공연 '바우덕이 댄' 개막



안성시립풍물단은 3월 25일(토) 오후 2시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2023년도 상설공연 대장정의 서막을 열었다. 안성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은 2022년도 열띤 찬사와 호평을 받은 바우덕이 댄을 더욱 세밀히 다듬고 퀄리티를 높여 관객들을 맞이한다.

금년 공연에서 특히 눈여겨볼 점은 실내 공연장의 조명효과이다. 무대조명 시설물의 완성도를 높여 공연 내 매 장면 순간을 환상적으로 수놓는다. 이어 대금, 피리로 이루어진 국악관현악 반주객원단 도입을 통해 줄타기 반주, 진쇠춤, 소고놀이, 비나리의 청각적 효과를 극대화했다. 마지막으로,

기존 버나에 LED를 부착하여 화려한 시각적 효과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권호용 문화예술사업소장은 "우리시 대표 문화콘텐츠인 남사당 상설공연을 올해 한층 짜임새 있게 제작하여 시민들께 감동을 선사하겠다."며 "안성시가 지역 고유자원을 바탕으로 문화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성 남사당 상설공연은 2023년 11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안성맞춤랜드 내 남사당공연장에서 관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조혜영/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104년 전 선열들의 자주독립정신이 이어갈 것"

### 25일 동천동 머내만세운동-기흥 3.30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 참여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5일 3·1운동을 기념해 관내에서 열린 만세운동 기념행사에 참여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나라 사랑의 마음을 되새겼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수지구 동천동 고기초등학교 앞에서 열린 머내만세운동 기념행사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 삼창을 외치는 등 선열들의 자주독립정신을 기렸다.

머내만세운동은 1919년 3월 29일 당시 고기리와 동천리 주민 400여명이 수지면사무소로 몰려가 만세시위를 벌인 용인의 대표적 독립운동이다.

동천마을네트워크가 주최하고 용인시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서 120여명의 참가자들은 머내만세운동 발상지인 고기초등학교에서 낙생저수지를 거쳐 동천근린공원까지 약 4km를 행진하며 태극기 물결을 수놓았다.

이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104년 전 우리 선열들은 일제의 질곡과 속박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세계 만방에 밝혀주셨고, 용인에서도 이곳 고기리와 동천동에서 우리 민족이 깨어있음을 보여주셨다"라며 "우리 선열께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독립운동을 한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번영을 누리고 있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5일 수지 머내만세운동 기념행사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선열들은 기미독립선언서를 통해 '우리 후손들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할 것이다'라고 그 숭고한 뜻을 밝히셨으며, 그 뜻을 이루어주셨다. 오늘 우리가 독립만세운동을 기리고 기억하는 까닭은 선열들이 피와 땀으로 물려주신 이 나라를 더욱더 발전시켜서 이 자리에 계신 시민들과

우리 어린이들이 더욱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에서도 선열들이 보여 주신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정신과 후손을 위한 희생정신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오후엔 기흥구 신갈동 행정복지센터 광장에서 열린 기흥 3.30 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104년 전 3월 30일 당시 신갈천변에서 수십명의 군중을 지휘하며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김구식 선생을 비롯한 기흥 출신 애국지사 김혁 장군 등 선열들의 독립운동과 만세운동을 기리기 위해 기흥3.30독립운동기념사업회 주관, 용인시 후원으로 개최된 기념식이다.

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사는 헌화와 기미독립선언문 낭독, 어린이뮤지컬단 리틀 용인의 기념공연으로 이어졌다.

이 시장은 기념사에서 "선열들이 기미독립선언서 공약사항에 있는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요구를 정당하게 밝히라'는 내용 그대로 이곳 기흥에서 실천 해주셨다"며 "선열들의 뜻을 이어받아 다시는 외침(外侵)을 허용하거나 나라를 잃는 일이 없도록 우리 안보태세와 각오를 튼튼히 하자"고 말했다.

행사 후 신갈동 행정복지센터 광장을 출발한 참석자들은 김구식 선생의 애국심이 서려 있는 신갈천 개울변단의 기흥 3.30만세운동 표지석까지 약 1km를 행진하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조혜영/기자

### 고양시 "재난관리 실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고양시가 '2022년도 고양시 재난관리 실태'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시했다.

재난관리 실태 공시는 매년 전년도 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투자 현황(예방·대비·대응·복구사업 등) 및 운영성과 등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자치단체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행정을 강화하여 재난관리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재난관리 실태 공시 대상은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 현황 △재난 예방조치 실적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 현황 등 총 13종이다. 최근 고양시의 5년간 재난관리 현황 등을 알기 쉽게 수치화 및 도표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작년도 고양시에서 호우 및 태풍 등의 자연재난으로 주택침수(365건) 등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하여 재난지원금으로 약 10억 3천만원을 지원하고 교량침하(1건) 및 옹벽붕괴(1건)를 복구하기 위해 28억원이 소요됐다.

재난관리 기금적립은 165억4천만원으로 당해 연도 확보 기준액 62억4백만원 대비 267% 확보됐고, 2022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결과 B등급으로 안전에 가까우며, 지난 진단 결과 대비 1등급 상승했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는 앞으로도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활동 등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 재난관리역량을 강화하고 안전 및 재난분야 운영성과 공유를 통해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 방세환 광주시장,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 선출

방세환 광주시장이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지난 24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제17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6기 특수협 공동위원장 선출을 비롯해 특수협 보고안건 5건, 특수협 운영 규정 개정(안) 등 2건의 안건을 의결했으며 시·군 및 주민 대표단 건의 사항을 논의했다.

올해 구성된 특수협 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은 환경부 차관, 경기도 제1행정부지사 당면직 2인과 7개 시·군 시장·군수 대표로 방세환 광주시장, 의회 의장 대표로 김하식 인천시회의장이, 주민 공동대표로 가평군 주

민대표 김영복씨, 광주시 주민대표 강천심씨 등 6명으로 구성됐다.

특수협 공동위원장에 선출된 방 시장은 "공동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그동안 팔당상수원 수질보호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팔당호 수질 1급수를 달성했다"며 "대통령이 말씀하신 규제개혁과 맞물려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수협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관 거버넌스 기구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주민의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기 위해 지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7개 시·군 전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박강호/기자



## 연수구민, 승기천 '깨끗한 수질 확보'가 최우선

### 관리권 일원화파라 불편사항 설문...이용자 88% 1천76명이 구민

연수구의 승기천 관리권 일원화에 따른 구민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승기천의 수질상태 개선을 가장 우선적으로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구민 이용자의 45%가 산책로로, 22%가 자전거도로로 주로 이용하고 있고 대부분 주 1회 정도 휴식과 산책을 목적으로 승기천을 다니다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이용자의 88%가 연수구민으로 연령별로는 40~50대, 성별로는 여성들이 가장 많고 구민들은 이번 관리권 일원화를 계기로 승기천의 많은 변화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수구는 지난 5일부터 동막·동춘·원인재·선학 등 4개 지점에서 진행한 방문자 조사에 이어 온오프라인으로 불편사항 등에 대한 구민 이용자 1천 76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현장조사를 통해 그동안 승기천에 대한 주민 불편과 기대사항에 대해 정확히 알아내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 주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승기천의 모습을 알아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 최우선으로 개선해야 할 점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19%가 수질상태라고 답했고 17%가 악취, 15%가 화장실, 13%가 각각 휴식공간과 산책로 순으로 꼽았다.

승기천 방문 빈도는 매달 1~5번이 42%로 가장 많았고 6~10번이 13%, 11~20번이 9%, 거의 매일 승기천을



찾는다는 응답자도 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민들의 승기천 방문 목적은 휴식·산책이 5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운동이 27%, 자전거 타기가 11%, 동식물 관찰 3%, 사진촬영이 2%의 순으로 조사됐다.

구민들이 생각하는 그동안 하천관리 만족도는 보통이 44%를 기록했고 불만족이 29%, 만족이 13%, 매우 불만족 10% 순으로 앞으로 하천관리에 대한 구민 만족도를 끌어 올리는 일

이 시급한 것으로 나왔다.

반대로 그동안 승기천 이용 중 만족사항으로는 산책로가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전거도로 21%, 가로등 7%, 진입계단과 안내판을 각각 6%로 답했다.

승기천에서 진행되는 희망 프로그램으로는 테마 꽃길 조성이 33%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걷기 프로그램 24%, 생태체험 프로그램이 19% 순으로 조사됐다.

향후 승기천의 모습을 묻는 발전 방

향에 대한 질문에는 깨끗한 하천용수 공급이 26%로 가장 높았고 주민편의 시설과 생태계 보전이 각각 22%, 홍수방지 20%, 공연·축제행사가 10%로 나왔다.

승기천에 바라는 의견으로는 주민들이 산책로 이용을 가장 선호하고 있지만 자전거 충돌 위험으로 보행로 확대 등 안전 부분 확보가 가장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그늘막 등의 휴식공간, 송도국제도시와 승기천의 연결, 야간 가로등 설치, 여름철 날파리로 인한 불편사항, 파손 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보수 등을 원했다.

연수구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이달 중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산책로 확대, 보안등 설치 등 승기천 안정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추경예산 확보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또 인천시, 인천환경공단 등과의 협력을 통해 구민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깨끗한 하천용수 공급을 최우선으로 승기천의 수질과 악취 개선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관리권 일원화 이후 구민들께서 승기천의 많은 변화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했다."라며, "승기천에 대한 애정과 불편 사항을 정책에 올바르게 반영해 구민들께서 희망하는 하천으로 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라고 밝혔다.

김중남/기자

### '평택박물관의 역할과 기능' 일곱번째 박물관 포럼 개최

국내 공립박물관 중 최다 보물 소장, 예천박물관 이재완 관장 초빙 강연

경기 평택시 문화예술과 박물관팀이 지난 24일 평택문화원 대동관에서 이재완 관장(경북 예천박물관)을 모시고, '평택박물관의 역할과 기능'이라는 주제로 '제7회 평택박물관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50여 명의 공직자와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현재 건립 추진 중인 평택박물관이 지역사회에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

평택박물관뿐만 아니라, 전통적 개념의 뮤지엄에서 현대적 개념으로의 변화를 꾀해야 하는 이유를 함께 고민하고 지방 공립박물관의 현주소를 함께 생각해 보는 이 자리는 평택박물관 건립을 추진 중인 시기에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재완 관장은 이 자리에서 "박물관을 기존의 다양한 자료나 표본을 보존하고 연구하여, 일반 대중의 교육과 오락을 위해 공개 전시 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형에서, 지역사회의 참여와 소통으로 교육, 즐거움, 성장, 지식 공유 등으로 관객 중심의 문화융합시설로 다변화된 평생교육 기관"이라고 설명하면서, "평택박물관은 평택에 거주하는 시민이 주인이 되어야 하며, 특히 단순 전시를 넘어 관람객과 함께 소통하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이

가미된 복합문화시설로 의미가 확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물관은 과거의 것으로 현재와 미래자원을 생산하는 곳이 되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가치재 - 가령 반도체와 같은 것들 또한 풍부한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정체성을 띤 평택시민들의 '놀이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지방 공립박물관의 역할 변화에 대해 강조했다.

평택시 박물관팀은 지난 9월부터 첫 번째 '평택박물관 포럼'을 시작으로 매월 1회 박물관의 건립 및 운영과 관련한 전국의 전문가를 초빙해 시민, 공직자와 함께 자문을 구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계속 마련하고 있다.

한편, 예천박물관은 국내 공립박물관 중 가장 많은 보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주말이면 300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는 경북 지역을 대표하는 박물관이다.

오는 4월 14일에는 청암대학교 김인덕 교수를 모시고 여덟 번째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시는 2026년 개관을 목표로 고덕국 제신도시 함박산공원 내에 평택시 최초, 공립, 종합, 역사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이며 현재 평택박물관 건립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하고 나머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박물관 설계를 시작할 방침이다.

양시현/기자

# 영양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긴급지원 업무협약 체결



영양군은 3월 27일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특례보증한도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된 소상공인 특례보증 긴급 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은 코로나 19 여파에 이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저리로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

영양군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기출연한 출연금이 경기 악화로 급속하게 소진될 것에 대비하여 추가로 1억 원을 출연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출연하면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출연금의 10배인 10억원까지 소상공인에게 특별 보증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금

난을 덜고 신속한 경영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신청일 현재 영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년간 3%의 이자를 지원한다.

특히 영양군은 조례 개정을 통해 특례보증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증액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데 일조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최근 물가 및 금리 상승으로 사업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안정적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는 출연금을 2배로 확대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경남도, 파격적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확대 지원한다!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 조례·시행규칙’ 개정, 30일 시행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오는 3월 30일부터 기업유치 인센티브 개편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선 8기 박완수 도정 출범 이후 준비해 온 인센티브 개편은 지난 1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3월 제402회 경상남도의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번 개편은 경남도가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정 최우선 핵심과제로 정하고,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추진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지원 등 정부국가균형 발전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 이전에 따른 조속한 지역 정착과 변화하는 투자환경에 맞춘 지원업종 확대, 도내 고른 투자유치 환경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인센티브 개편 주요내용은 ▲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최대 100억 원에서 최대 200억 원으로 증액 ▲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지원 100억 원 확대 ▲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요건에 ‘투자유치촉진지역’

추가 ▲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 최대 100억 원까지 확대 ▲ 관광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근거 신설 ▲ 이중 지원 금지 예외 조항 마련 등이다.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의 경우, 기존 설비투자에만 100억 원을 지원했으나, 부지매입비까지 확대하면서 최대 지원을 200억 원으로 늘렸다.

이는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며 조례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한 특별지원이 가능하도록,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린 결과이다.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지원의 경우, 투자진흥기금에서 5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의 지원조건으로 기존 5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번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부지매입비 지원 신설과 무이자 융자지원 확대는 토지가격 상승으로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최우선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도내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집중 공략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업투자촉진지구에 대한 지원도 최대 14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요건에 ‘투자유치촉진지역’을 추가했다.

기업투자촉진지구는 도내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미분양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기존 시행 중으로, 이에 더해 투자 특정지역 편중 및 열악한 투자환경으로 소외된 도내 지역을 ‘투자유치촉진지역’으로 추가하여 도내 균형있는 투자환경 조성에도 집중했다.

투자유치촉진지역은 향후 시군을 통해 별도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관광사업·문화콘텐츠산업 지원 보조금도 신설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

보조금은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대규모 투자 시에는 최대 20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특히 문화콘텐츠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건물 임차료를 2년간 50% 이내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고용보조금도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현재 남해안 관광

벨트 구상 계획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의 이번 조례 개정은 다양하고 폭넓은 인센티브 시행을 통해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창호 투자유치담당장은 “이번 개편된 인센티브를 통해 경상남도의 매력적인 투자환경에서 성공적인 투자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미래 신산업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등 투자유치 다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두루 앵커기업 대상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해 올해도 역대 최대 유치실적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이번 인센티브 개편을 시작으로 기업의 더 많은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며, 자세한 인센티브 주요 개편 내용 등은 3월 30일부터 경상남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재현/기자

# “엑스포 열기 좋은 도시 부산”, 부기호 유치 응원 신고 하늘 날다!

## 부산시·송도해상케이블카·해운대블루라인파크·한국관광공사 협업 ‘부기호 캠페인’ 진행

부산의 대표적 관광시설인 송도해상케이블카와 해운대블루라인파크에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열기를 더하는 ‘부기호 캠페인’이 진행된다.

부산시는 우선 오는 6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송도해상케이블카의 캐빈 20대와 해운대블루라인파크 스카이크랩 20대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하는 ‘부기호’로 제작해 운영한다.

‘부기호’에는 부산의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 ‘부산이라 좋다(Busan is good)’와 엑스포(EXPO)를 결합한 ‘엑스포 열기 좋은 도시 부산(Busan is good for EXPO)’이라는 유치 응원 메시지와 함께 2030부산세계박람회 마스코트로 파리 세느강 등 국내를 넘어 세계에서 대활약 중인 부산시 소통캐릭터 ‘부기’가 유치를 응원하는 모습이 랩핑돼 있다.

특히, 2030부산세계박람회가 대한민국의 첫 세계박람회가 될 것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부기호’ 랩핑 디자인에는 ‘꽃가마’ 디자인을 주축으로 총 9종의 한국적인 디자인 요소가 가미됐다.

시는 ‘부기호’ 운영과 함께 ‘부기호 캠페인’의 일환으로 앞으로 약 한달간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유치 응원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펼친다.



이번 캠페인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추진해 전국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전개한다.

캠페인은 ▲ 부기호 인증 이벤트(3.24.~4.30.) ▲ 2030부산세계박람회 응원 댓글 이벤트(3.24.~4.30.) ▲ 부기호 홍보 버스 운영(4.1.~4.9.) 등으로 온·오프라인 모두 동원해 유치 열기를 지필 예정이다.

이번 ‘부기호 캠페인’은 오는 4월 초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실사를 대비해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

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응원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한 범시민적 유치 열기를 고조시키고자 ▲ 부산시 ▲ 한국관광공사 ▲ 송도해상케이블카 ▲ 해운대블루라인파크의 협업으로 마련됐다.

협업기관 모두 국제박람회기구 현지실사를 앞두고 유치 응원 분위기 조성에 힘을 모아야한다는 것에 공감했고, 이에 원팀이 돼 적극적으로 협력한 결과 이번 ‘부기호 캠페인’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시는 부산을 찾는 관광객이 송도해상케이블카와 해운대블루라인파크가 있는 서부산과 동부산 모두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응원의 마음을 가득 안고 하늘을 나는 ‘부기’를 본다면 유치가 더욱 공감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협업기관 4곳은 이번 부기호 운영을 통해 원팀이 된 계기로 ▲ 부기호 운영·캠페인 협력과 여기에 더해 ▲ 부기 활용 국내외 관광객 대상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협력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협약식은 오는 31일 오후 2시 30분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되며, 박형준 부산시장, 김장실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비롯한 협업기관장이 모두 참석해 협약서 서명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한 결의를 다질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캠페인은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유치 열기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부기호’가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는 동시에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응원 분위기 조성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송준진/기자

# 청송군, 결핵 제로!



청송군 보건소의료원은 결핵예방의 날(3.24)을 맞아 지난 3월 23일 진보 전통시장에서 결핵예방의 날 기념 캠페인을 가졌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및 감염병 대응에 이어 예방과 교육을 위한 새로운 발걸음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결핵검진과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을 가리는 기침예절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자리가 됐다.

또한 군은 올해 실시되는 비만예방 캠페인, 한방 의료 사업, 치매 예방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활발한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윤근수/기자

특히 지난해 경로당 이동 결핵검진을 통해 큰 호응을 받은 만큼 올해는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을 진행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이 결핵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결핵의 가장 좋은 예방법은 검진이며 초기에 발견해 지속적으로 치료하면 완치 가능한 질환이다.”며 “결핵환자의 대다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기침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증상이 없어도 연 1회 이상 꼭 결핵검진을 받아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남해군 '꽃피는 남해'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 "봄철 개화기 축제 현장 안전관리 만전"

남해군은 지난 23일 남해군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남해군수 주재로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이틀 간 열리는 '남해대교 개통 50주년 문화이벤트 꽃피는 남해' 행사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심의했다.

또한 남해경찰서장, 남해소방서장, 남해교육지원청교육장 등 8개 유관기관장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는 재난안전통신망 기반 산불발생 대응 모의 교신훈련도 함께 진행했다.

먼저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서는 시설·전기·소방 등 분야별 안전대책, 비상대피로 확보 및 질서유지, 교통대책, 안전관리 상황 발생 시 조치계획 등 축제장 안전관리계획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많은 인파가 몰릴 수 있는 불꽃놀이 안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제시됐으며, 축제 개최 전 유관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철저히 대비할 예정이다.

남해군은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고위험 축제에 대해 안전관리계획 고의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

이유준/기자

# 경북교육청, 인공지능 적용된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개통 준비에 박차

경북교육청은 27일 화백관에서 4세대 지능형 나이스의 차질 없는 개통을 위해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150명으로 구성된 개통 준비단을 꾸리고 업무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오는 6월 4세대 나이스 정식 개통을 앞두고 최종 준비상황 점검과 업무별로 달라진 영역과 강화된 권한 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신규 도입된 시스템을 참관하는 순으로 진행했다.

나이스 시스템은 지난 2002년 1세대 서비스를 시작으로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전방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물론 대국민 서비스까지 책임지는 종합시스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새로운 시스템은 AI, 빅데이터 기반의 최신 기술을 적용해 공동교육과정, 교과학점제 등 학생 선택 중심의 교육정책을 강화하고 교육공무직 인사, 유치원 교무학사 등 한층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서비스 연속성 확보와 학생과 교직원의 데이터 보호를 위해 세종백업센터와 실시간 연동해 재해 발생 시 24시간 이내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김태형 부교육감은 인사말에서 “4세대 지능형 나이스의 안정적 개통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미래 교육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개통 준비단은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 영주시 29일부터 '사이소·영주장날'서 '풍기인삼 소비촉진 특별 기획전'

가격안정 대책 모색...소비부진 회복위한 대대적인 소비촉진 나서

영주시가 인삼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불안을 해소하고, 소비 감소에 대응해 인삼산업을 안정시키기 위해 경상북도와 함께 온라인 쇼핑몰 대규모 할인 행사에 나섰다.

27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인삼 소비(수출) 부진이 재고 누적, 가격 하락 등으로 이어져 생산 분야를 비롯한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를 끊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소비 수요를 확대하는 데 어느 때보다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오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영주시 공식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영주장날'과 경상북도 고향장터 '사이소'에서는 특별판매 기획전(부제 인삼의 눈물)을 개설해 인삼 및 홍삼가공품 전제품 30% 할인권을 발행한다. 1회 최대 할인금액은 3만원이며 예산소진 시 행사는 조기 종료된다.

국내 대표 오픈마켓 'G마켓'에서도 영주시 소재 인삼류 제품을 대상으로 판촉행사를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정희수 유통지원과장은 "이번 대규모 풍기인삼 소비촉진 특별판매 기획전을 통해 유통단계를 최소화해 비용을 절감하고 판매량을 늘려 인삼재배 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영주시 대표 농특산물인 풍기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행사기간** 2023. 3. 29. ~ 4. 30.

- 1.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행사대상** 영주장날 쇼핑몰, 사이소 쇼핑몰(경상북도 고향장터)

- 1. G마켓 풍기인삼 제품 판매행사도 추후 진행됩니다.

**행사내용** 쇼핑몰 내 풍기인삼 제품 30% 할인권 발행

- 발행규모: 약 600만 원
- 상품 주문금액의 30% 할인 (1회 최대 할인금액 30,000원)
- 당일 사용 유효(기간: 1일 1회 사용 가능)

윤근수/기자

## “경북의 매력 우리가 알린다!” 경상북도 SNS 서포터즈 발대식 갖고 활동 시작

역대 최고 경쟁률.. 유튜버, 귀농인 등 다양한 이력 가진 70명 선정

경북도는 24일, SNS 채널을 통해 경북의 매력을 홍보할 '2023년 경상북도 SNS 서포터즈'의 발대식을 개최했다.

경북 SNS 서포터즈는 2014년 시작해 올해 10년째를 맞았으며 정책, 문화·관광, 재난안전 등 주요 조정 현장 및 행사를 도민의 시각으로 취재해 뉴미디어를 통해 홍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숨겨진 명소와 이야기를 취재해 도민과 경상북도의 상호 소통에 큰 역할을 해왔다.

SNS 서포터즈가 생산한 콘텐츠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메인 페이지에 꾸준히 노출되어, 경북 곳곳의 생생한 소식을 알리는 일등공신으로 활약했다. 특히 지난 10년간 SNS 서포터즈의 활약으로 경북 공식블로그에 취재 기사 콘텐츠 약 3200건이 게시됐으며, 누적 조회수는 총 950만 회를 기록해 그 효과를 다시금 입증했다.

올해 SNS 서포터즈는 여행 인플루언서, 작가, 유튜버, 귀농인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452명이 지원해 역대 최다인 6.4:1의 치열한 경쟁률을 기



록하며 경북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사진과 글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반 서포터즈 50명을 선발했으며, 유튜버 등 동영상 콘텐츠 제작 수요에 발맞추는 영상 서포터즈 20명도 함께 운영한다.

SNS 서포터즈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12월까지 경북 23개 시군 전역을

노비며 관광명소, 정책현장, 핫플레이스 등을 취재한다. 이들에게는 취재 및 콘텐츠 제작에 따른 소정의 원고료가 지원되며, 1년간 가장 활발히 활동한 서포터즈에게는 도지사 표창 등 특별 포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포터즈가 취재한 경북의 생생한 소식은 경상북도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을 통

해 확인할 수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 자원을 보유한 지역”이라며, “디지털 감성과 소통능력을 갖춘 SNS 서포터즈가 발로 뛰며 취재한 콘텐츠로 경북의 매력을 널리 알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 울진군, 제61회 경북도민체전 맞아 문화예술행사 개최

‘대한민국의 숨 울진’에서 즐기는 풍성한 문화예술공연

울진군은 오는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되는 제61회 경북도민체전 기간 동안 울진을 방문하는 선수단과 관광객을 위해 풍성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한다.

먼저 경북도립교향악단 초청공연이 4월 13일 저녁 7시 30분 연호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열린다. 백진우의 지휘와 40여 명의 교향악단원, 그리고 가수 윤성, 이영진이 함께 성공체전의 희망메세지 전달을 위한 환상의 하모니를 만들어낼 예정이다.

또한 도민체전 전야제 행사인 '제61회 경북도민체전 성공기원 화합콘서트'가 4월 20일 저녁 7시부터 울진 연호체육공원 축구장에서 개최된다. 박창근, 예일리, 노라조, 은가은의 축하공연과 성화안치식, 멀티미디어쇼 등의 다양한 부대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이 밖에도 4월 22일부터 23일 양일간 울진연호공원에서는 울진음악협회, 울진연예인협회, 울진국악협회가 주축이 되어 봄을 주제로 한 다양한 공연을 펼치며, 연호문화센터 2층 전시실에서는 울진의 아름다운 풍광을 그린 '울진꽃 사진·미술展'이 도민체전 기간 동안 상시로 전시된다.

김종열 문화관광과장은 “12년 만에 개최되는 도민체전인만큼 울진을 방문하는 선수단이 한계를 뛰어넘어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응원하는 특별한 문화예술행사 진행할 예정이다. 300만 도민이 마음껏 즐기고 하나 될 수 있는 체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군민들의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장문화/기자

**문화예술 행사**

**전야제 공연**

**전시**

### 울릉군, 23년 식품위생업소 영업주 친절·위생교육 실시

울릉군은 본격적인 관광 시즌을 맞아 식품위생업소 영업주 150여 명을 대상으로 친절·위생서비스교육을 3월 24일 울릉군민회관에서 실시했다.

울릉군과 한국외식업중앙회 경북지회가 주관한 이번 위생교육은 위생업소 영업주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업소 영업주 및 위생관리책임자가 참석 대상이다.

이날 교육은 식품위생법 주요 준수 사항, 식중독 예방 교육 및 영업자의 노무관리 등의 내용으로 음식점 영업자가 이해하고 준수해야 할 사항과 외부 친절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친절교육을 같이한다.

또한, 이번 교육 일정에 참석하기 어려운 음식점 영업자들을 위하여 하반기 11월 내 2차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현권 울릉군수는 “이번 교육으로

영업자의 철저한 위생관리와 종사자 친절서비스교육 등을 통해 음식점의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업소의 경영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건전한 외식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현중 조강제/기자

### 경주시, '제2금장교 조성사업' 순항 중... 올해 11월 개통

공정률 70% 넘어선 가운데 공사 순조롭게 진행 중... 오는 6월부터 교량 상판 연결 들어가

경주시 황성동과 현곡면 금장리를 잇는 제2금장교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오는 11월 말 개통이 확실시되고 있다.

경주시가 사업비 410억원을 들여 폭 20m, 왕복 4차선, 총 연장 371m 규모로 조성 중인 제2금장교의 공정률이 70%를 넘어섰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주시가 황성동과 현곡면을 잇는 신설 교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북도와 정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본격화됐다.

경주시의 노력 덕분에 2018년 실시 설계 용역 착수, 2019년 노선선정 및 교량공법 선정 완료와 2020년 7월 실시설계 완료를 거쳐 2021년 3월 착공에 들어갔다.

교량 명칭은 시민 공모를 통해 최종적으로 '황금대교'로 선정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국가지명위원회 개최가 지연됐던 탓에 당분간 '제2금장교'라는 명칭으로 불릴 예정이다. 제2금장교가 개통되면 기존 황성동과 현곡면을 유익하게 연결하던 금장교의 교통정체가 해소됨은 물론, 금장지구와 하구지구 등 주거밀집 지역의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제2금장교는 시민 안전과 편



의를 위해 자전거·보행 겸용인도를 별도로 조성하는 한편, 전망대와 조형물을 설치해 단순히 기능성만 강조된 교량이 아닌 경주의 미려한 경관과 어우러질 수 있는 아름다운 교량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교량명칭 확정을 위한 주민공모 사업을 진행하는 등 소통·공감행정 구현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윤태용/기자

### 안동시 농특산물 시장개척단, 대만 현지 마케팅 성과

안동사과 200톤·사과즙 10톤, 90만불 대만 수출 약정 체결

안동시 농특산물 시장개척단이 대만에서 사과 200톤 사과즙 10톤의 수출 약정을 맺으며 판로확장의 성과를 달성했다.

대만은 안동 사과 최대 수입국으로, 한류 확산 등 K-푸드 인지도 상승으로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이 많은 곳이기도 하다.

시는 대만 사과 시장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현지 시장을 선점하고자 마케팅을 통한 판로 확보에 나섰다. 유통특작과장을 단장으로 농특산물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안동사과, 사과즙 등 안동 농특산물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지난 23부터 25일까지 대만 타이베이 지역을 돌며 현지 유통업체, 바이어와 상담회 등을 가졌다.

개척단은 24일 대만 최대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안동사과 시식, 홍보, 판촉



행사를 열고, 동안동농협과 대만의 유통업체 Gold Agric Inc, 무역회사 H&P와의 상호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안동 농특산물의 수출 유망 품목 발굴 및 수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이를 계기로 동안동농협은 안동사과 200톤(60만불), 사과즙 10톤(30만불)을 수출하기로 약정 체결하는 성

과를 올렸다. 안동시 관계자는 “대만은 우리시 농식품 수출 2위를 차지하는 주요 수출국으로, 이번 활동을 통해 현지 소비자들에게 안동 농특산물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수출을 확대하여 농가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예천군, KBS 전국노래자랑 예심 참여자 모집

예천군은 오는 4월 7일까지 KBS 전국노래자랑 예천군편 '예심' 참가 신청을 받는다.

국내 최장수 프로그램인 KBS 전국노래자랑은 제20회 예천아시아 U20 육상경기선수권대회 개최를 기념해 2016년 이후 7년만이며, 오는 4월 15일 한천체육공원 특설무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예심참가는 군민은 물론 직장인, 학생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예천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예심은 13일 오후 1시 예천군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리며 이날 본선에 진출할 15개 팀을 선발하고 본선 녹화에는 개그우먼 출신 김신영 MC의 재치 있는 입담과 함께 조항조, 이혜리, 워크, 신승태, 은가은 등 인기 가수가 출연해 신나는 무대를 장식한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6월 4일부터 7일까지 예천스타디움 일원에서 열리는 예천아시아U20육상경기선수권대회 성공을 개최를 염원하며 KBS 전국노래자랑을 개최한다.”며 “누구나 참여해 재능과 기를 마음껏 발휘하시고 화합을 다지는 시간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

제20회 예천아시아 U20육상경기선수권대회 개최 기념

**KBS 전국 노래자랑** 예천군편

예심 2023. 4. 13(목) 오후 1시

본선 2023. 4. 15(토) 오후 1시

주최: 예천군 주관: KBS

### 경북교육청, 타시도 학생 유입 크게 늘어!

2023학년도 고입전형 결과 타시도 유입 학생수 1,393명, 유출의 4.7배



경북교육청은 2023학년도 고입전형 분석한 결과 타시도 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이 294명, 타시도에서 경북의 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이 1,393명이라고 발표했다.

한 명의 학생도 소중한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유출보다 유입이 4.7배에 가까운 1,393명에 이른다는 것은 경북교육의 상당한 교육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직업계고에 해당하는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의 학생 유입이 두드러지며 이는 대부분의 일반계고가 경북지역 학생을 모집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해 직업계고는 전국 단위 학생 모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2020년부터 직업계고 취업률 전국 1위, 미래산업수요에 맞게 항공, 반려동물, 조리 관련 등 발 빠르게 학과 재구조화를 개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전체 유입 학생 1,393명 중 마이스터고(유입 160명, 전체 마이스터고 모집 정원의 20%)와 특성화고(유입 703명, 특성화고 모집 정원의 16%)

로 유입한 학생이 863명에 달한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021학년도부터 온라인 고입전형 시스템을 개발·적용해 타시도 학생들의 응시가 쉬워졌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온라인으로 원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합격 확인과 등록까지 비대면으로 실시한 결과 학생, 학부모의 신뢰는 물론 고입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들에게도 상당한 업무 경감을 가져왔다.

또한 온라인 고입전형 시스템으로 정확한 통계자료의 추출이 가능해 향후 경북으로 유입, 유출되는 학생들의 빅데이터가 교육의 방향과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자료가 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교육 가족 모두의 노력으로 고입전형에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며 “따뜻한 경북교육의 가능성을 믿고 찾아오는 타시도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더욱 내실 있는 경북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경북도, RIS를 통한 지역인재 양성으로 미래차산업 선도한다!

### 대구경북지역혁신플랫폼 미래차전환부품사업단 성과공유 페스타 개최

경북도와 영남대학교 미래차전환부품사업단은 지난 24일 대구 인터볼고 호텔에서 '대구경북지역혁신플랫폼 미래차전환부품사업단 성과공유 페스타'를 개최했다.

이번 페스타는 대구경북지역혁신플랫폼 미래차전환부품사업단의 지난 1년간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참여주체 간 연계 및 협업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이달희 경제부지사,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 이승호 대구경북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장, 최의출 영남대총장 등 17개 참여대학 총장을 비롯한 지역혁신기관과 참여기업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미래차전환부품사업분야의 중심대학인 영남대학교 미래차전환부품사업단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미래차 지역인재혁신포럼 △추진성과 전시회 및 성과공유회 △지역혁신기관-대학 간 협력을 위한 벨류체인강화 세미나 △지역민과 함께하는 메타버스 체험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미래차 지역인재혁신포럼에서는 지난 1년간 미래차전환부품사업단의 성과와 우수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경북도 지역인재혁신 선도식을 통해 미래차 분야 인재양성과 사업주체 간 협업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이어 지역성과공유회에서는 1차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2차년도 사업방향을 논의했다.

미래차 벨류체인 강화 세미나에서는 R&D 분야 연계협력을 위한 정보공유와 연구과제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어울림 한마당에서는 참여기

관·기업의 소개와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대상 취업준비상담이 이뤄졌다.

또 지역민과 함께하는 메타버스 VR 체험행사에서는 메타버스 체험프로그램을 구성해 미래차를 주제로 한 다채로운 볼거리와 정보를 참석자들에게 제공했다.

대구경북지역혁신플랫폼은 지난해 7월 우수인력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인재의 지역 정착을 위해 경북도와 대구시, 경북대와 영남대를 비롯한 23개 대학, 14개 지역혁신기관, 200개 기업이 함께 뜻을 모아 출범했다.

경북은 미래차전환부품을, 대구는 전자정보기기를 핵심 분야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는 대구·경북에 국내 최대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대구, 경산, 영천, 경주)가 구축되어 있으며,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미래차전환에 대한 수요와 혁신기술에 대한 요구가 많음에 따라 미래성장산업인 미래차전환부품사업을 대구경북지역혁신플랫폼의 경북도 핵심 분야로 선정했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현재 자동차산업은 IT기술 발달과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증가로 내연기관에서 전기·수소자동차, 자율주행 등 글로벌 자동차시장이 변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대구경북 지역혁신플랫폼이 중심이 되어 지역 연구기관과 자동차부품 제조기업이 상생 협력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폴란드에서 파워풀! 육상도시 대구 열기 후끈!

### 2026대구세계마스터스육상경기대회 홍보단 파견 : 3.22.~3.26.

대구시는 2026대구세계마스터스육상경기대회에 지구촌 육상인들의 스포츠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2023도론(폴란드)세계마스터스실내육상경기대회에 홍보단과 선수단을 파견했다.

지난해 7월 핀란드 탐페레 WMA 총회에서 166회원국 만장일치로 유치한 2026대구세계마스터스육상경기대회 준비와 홍보를 위해 2023도론세계실내마스터스육상경기대회에 참가한 각국 선수들에게 2026대구 WMAC대회를 홍보하고 국제육상도시 대구의 열정을 보여주었고 있다.

홍보단은 주경기장에 3월 22일부터 3월 29일까지 홍보부스를 설치해 도론 대회에 참가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2026대구세계마스터스육상경기대회 참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한류문화의 신시장으로 떠오르는 폴란드의 열기에 부응하고자 홍보부스에 참가한 현지인 및 선

수들에게 한복입기, 제기차기, 딱지치기, 전통음식(약과) 시식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3월 23일 ~ 24일 양일간에는 세계육상연맹(WMA)회장 마직 중만, 실무부회장 린 슈워드, 경기부회장 알란 벨 등 관계자 8명과 2차례의 WMA 임원 간담회를 통해, 2026대구WMAC의 추진상황과 대회 계약서, 현장실사, 경기 용기구 등에 대하여 협의했다.

3월 25일 개막식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니폼으로 홍보단 및 선수단이 함께 참가했으며, 'Let's go to Daegu in 2026'으로 전 세계 선수들에게 2026대구WMAC에서 만나자는 메시지를 전달해 참석자 모두의 갈채를 받았다.

이찬균 대구시 체육진흥과장은 "2026대구WMAC대회의 완벽한 개최를 위해 마직중만 회장 등 임원진과 내실 있게 협의했으며, 마스터스육상경기대회에 유럽 국가의 참여



열기가 높은 만큼 2026년 대구대회에 유럽 마스터스들이 많이 참여토록 홍보활동을 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계마스터스육상경기대회는 1975년 8월 캐나다 토론토 대회를 시작으로 실내·외 경기대회가 각각 격년으로 열리며, 35세 이상의 마스터스가 자부담(항공, 숙박, 참가비 등)으로 참가하는 유일한 세계육상경기대회이다. 100세이상까지 연령대

별로 참여하는 스포츠 축제의 성격이 강한 대회로, 유럽권의 참여가 매우 높다.

2026대구세계마스터스육상경기대회는 2026년 8-9월경 14일간 35종목(트랙 18, 필드 11, 로드 6)이 대구스타디움, 육상진흥센터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으로 90여 개국 11,0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근수/기자

## 달서구, 발명, 너도 할 수 있어!

대구 달서구는 지난 25일 달서아트센터에서 관내 초등학생4~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발명기·호기심 특목 창의발명교실'을 개강했다고 밝혔다.

호기심 특목 창의발명 교실은 2010년 달서구가 전국 최초 지식재산도시로 선정된 이후 신기술 기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운영해 온 프로그램이다.

호기심 특목 창의발명교실은 교육에 대한 참여율 및 만족도가 높아 올해 예산을 증액했다. 달서구청은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학기별 교육인원을 25명으로 확대하고, 보조강사도 2명 증원에 내실 있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총 10회로 진행되는 수업은 다양한 과학키트를 직접 만들고 체험해보며 발명 원리를 이해하는 등 아이들의 호기

심 해소와 창의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달서구 여성발명지도사 연구회(회장 임보희) 회원들은 생활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발명사례와 퀴즈를 통해 기초과학지식을 쉽게 설명하며 첫 시간을 이끌어갔다.

한편, 여름학기(6월) 및 가을학기(9월) 수강신청은 각각 5월과 8월에 달서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사전신청하면 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호기심 특목 창의발명교실이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특목 튼튼 상상력을 배양하는 좋은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창의성을 높이는 다양한 신기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도록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김동현/기자

## 예천군, 간판개선사업 완료...거리 '깔끔'·주민 '만족'

삼성의료기-한전 삼거리 양방향 106개 업소, 139개 간판 정비

예천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한 삼성의료기~한전 삼거리까지 이어지는 예천을 시장로 일원 간판개선사업을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6억 원의 예산으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노후·불량간판을 철거하고 건물의 입면 정비 등 거리 특색과 업종 이미지에 어울리는 디자인 간판으로 교체했다.

특히, 주민 의견을 수렴해 현대적 감각을 접목한 디자인으로 전체적인 미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106개 업소의 간판 139개를 교체해 상가주와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깨끗하고 활기찬 거리가 조성돼 예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아름다운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저녁에 LED 조명등이 켜져 에너지 절약은 물론 야간 경관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영의 건축과장은 “간판개선사업을 통해 기존에 노후 된 간판도 정비하고 아름다운 옥외광고 문화 확산은 물론 깨끗한 이미지 조성으로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쾌적한 도시 경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검토·추진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봉화군, 연예예술인 지역 역사문화 탐방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봉화지회는 연예예술인으로서 지역 역사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봉화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봉화사랑을 실천하고자 지역 역사문화 탐방에 나섰다.

이번 탐방은 연예예술을 사랑하는 만큼 지역 역사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시작하게 됐으며, 탐방에는 지역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는 전대성 회원이 동반해 해설을 진행한다.

지난 2월 봉화정자문화생활관 탐방을 첫 시작으로 3월 24일에는 달실마을(박물관, 청암정, 석천장사, 석천계곡)에서 2차 탐방을 했으며, 연말까지 월 1회 판내 주요 역사문화 현장탐방을 추진할 계획이다.

두 차례 탐방에 참여했던 권성호(60)씨는 “탐방활동을 통해 지금까지 지나쳤던 지역 역사문화에 대해 올바른 이해로 봉화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며, 애乡심이 더 견고해졌다”며 “많은 군민들이 이러한 행사에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봉화지회는 봉화군 관내에 거주하는 군민 중 색소폰·기타·드럼·아코디언·플루트 등 악기 연주자와 국악·무용·가요 등 다양한 분야의 회원 5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연예예술 활동을 통해 여가를 즐기면서 문화예술에 소외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정금자/기자

## 의성군, 선도산림경영단지 평가 '매우 우수' 달성

의성군은 점곡면 동변리 일대 조성 중인 선도산림경영단지에 대한 산림청 주관 2022년 사유림 선도산림경영단지 평가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의성군 선도산림경영단지는 총 75억원의 국도비를 보조받아 2019년부터 2028년까지 10년간 조림 70ha, 숲가꾸기 565ha, 임도 15.5km 등 복합적인 산림경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5년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지표는 계획수립, 실행과

정, 성과달성의 항목으로 구분되고, 총 21개 세부지표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지며, 의성군은 2021년 실적에 대해 '우수'로 평가받는데 이어 금번 평가에서 한단계 상승된 등급을 달성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사유림 경영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선진적인 산림정책 수립·추진에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 완도군, 열세 번째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준비 박차!

#### ‘봄봄봄, 치유 정원 청산도로 오라!’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받은 청산도에서 오는 4월 8일부터 5월 7일까지 총 30일간 '2023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가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봄봄봄, 치유 정원 청산도로 오라!'라는 주제로 열린다.

축제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청산완보 스탬프 투어 ▲플로깅 캠페인 ▲은하수 투어 버스 ▲청산 진성 야간 산책 ▲달팽이 엽서 보내기 등이 다.

'청산완보'는 청산도 슬로길 11개 코스 중 4개 코스 이상을 걷고 스탬프를 찍어오면 상품을 주는 이벤트와 청산도의 밤하늘을 감상할 수 있는 '청산 진성 야간 산책'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야간 투어 버스를 타고 주민해설사와 청산도의 곳곳을 탐방하는 '은하수 투어', 엽서를 써서 보내면 1년 뒤에 도착하는 '달팽이 엽서 보내기', 유채꽃이 활짝 핀 청산도에서 봄을 즐길 수 있도록 '피크닉 세트 대여', 쓰레기를 주워오면 비누 등 친환경 제품으로 교환해 주는 '플로깅 캠페인' 등을 진행한다.

유채꽃이 만개할 4월 15일 개막식 날에는 '나비야 청산 가자'를 주제로 나비 날리기, 힐링 콘서트, 명사와 함께 걷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은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지난 21일 군수, 실·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 계획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축제 운영에 대한 부서별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문제점 및 대책을 논의했다.

군 관계자는 "올봄, 산과 바다 그리고 하늘이 모두 푸른 청산도로 오셔서 바쁜 일상 속 너름의 여유를 만끽하며 힐링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양영을/기자



### 장흥군, 안중근 의사 순국 113주기 추모제 개최

장흥군은 26일 장동면 해동사에서 '안중근 의사 순국 113주기 추모제'를 봉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모제에는 김성 장흥군수, 양윤채 장흥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지역기관단체, 죽산 안씨 문중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전통체례로 시작한 추모제는 안중근 의사 약사보고, 유언 낭독, 추모공연, 헌화 분향의 순으로 진행됐다.

해동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안중근 의사를 모신 사당이다.

1955년 당시 장흥 죽산 안씨 문중은 순흥 안씨인 안중근 의사의 후손이 없어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여 사당을 짓고 영정과 위패를 모셨다.

장흥군은 '안중근 의사 역사문화자원 개발사업'을 통해 해동사 일대를 추모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그동안 70억원의 예산을 투입 해동사 주변에 애국탑방로 등의 기반시설 조성을 완료했다.

올해는 안중근 의사의 업적을 기리고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추모역사관 건립을 추진해 전국 학생들의 교육·체험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안중근 의사가 보여준 나라 사랑 정신과 세계 평화의 꿈이 해동사를 통해 널리 알릴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안중근 의사 선양사업은 완성도를 높여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원/기자

### 해남 달마고도 봄길 열렸다 "달마고도 힐링축제 개최"

미항사·달마고도 일원서 4년 만에 개최, "땅끝의 봄기운 충전하자" 여행객 몰려



연두빛 신록이 번져가는 땅끝해남 달마고도의 봄 길 열렸다.

해남군은 25일 송지면 달마산 일원에서 2023 달마고도 힐링축제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이후 4년만에 열린 이번 축제는 '우리의 첫 봄, 달마고도와 함께'를 주제로 명품 수제길인 달마고도를 걸으며 여유로운 봄을 만끽하는 시간을 가졌다.

며칠새 내린 봄비로 초록빛 싱그러움을 더한 달마고도 곳곳마다 전국에서 찾아온 걷기 여행객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군은 개막식과 함께 길 위에서 즐길 수 있는 숲속 버스킹과 재즈, 퓨전 국악, 가야금 병창 등 힐링 음악회를 진행해 지루함 없이 걸을 수 있는 축제를 마련했다.

또한 노르딕워킹·명상 등 힐링 체험 프로그램과 SNS 인증샷 이벤트, 즐겁기 챌린지, 해남 특산물을 판매하

는 달마장터 등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도 마련되어 흥미를 더했다.

코스 중간에서는 열려 달마고도를 걷는 여행객들이 직접 나무를 심고, 이름과 소원을 적은 표찰을 다는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가 열려 발길을 멈추게 했다.

달마고도는 땅끝마을 아름다운 절미항사가 위치한 달마산에 조성된 17.74km의 둘레길이다. 중장비를 전혀 쓰지 않고 지게로 돌을 지어 나르고, 사람의 손으로 정성스레 땅끝 사람들이 다니던 옛길을 복원해 자연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사람이 가장 걷기 편한 걷기 길로 조성됐다. '한국의 산티아고'라고 불리며 연간 수만명이 찾으며 남도대표 걷기 길로 부상한 것은 물론 7시간 코스의 전체 걷기길 완주자도 2만명이 넘어서었다.

윤선애/기자

# 전남도, 친환경 과일·채소 공급기반 조성에 30억

## 과채류 육묘장·시설하우스·공동육묘장 등 생산·유통시설 구축

전라남도는 '2023년 친환경 과·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 4개소에 30억 원을 지원, 안전한 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에게 친환경 과일과 채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 대상 지역은 지난해 10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순천시, 담양군, 해남군, 영암군이다. 친환경 과채류 육묘장, 시설하우스, 공동선별장, 저온 저장시설 등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유통 기반시설을 구축하게 된다.

개소당 사업비 최대 10억 원을 지원하고 사업비 부담 비율은 도·시군비 70%, 자부담 30%다.

유덕규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생산 및 가공·유통 시설·장비의 현대화 지원으로 친환경 과·채소 생산

성 향상 등 친환경 농업인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각 사업 대상지는 사업 성과 극대화를 위해 적기에 사업을 완공해달라"고 당부했다.

"친환경 과·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은 벼와 비교해 친환경 인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과일과 채소 품목을 대상으로 육묘 등 생산단계부터 유통과 가공까지 시설 현대화와 일손을 덜어주는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민선 7기 역점사업으로 2019년부터 추진한 친환경 과·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까지 31개소에 110억 원을 지원해 친환경 과·채소 부문 생산·유통·가공 기반 확충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정해명/기자



## 광주광역시-전남도-국회-글로벌기업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맞손'

### 광주광역시-전남도-양향자 국회의원-LG이노텍 상생협력 업무협약

광주시와 전남도, 양향자 국회의원, LG이노텍(주)이 국가위기 극복과 지역의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24일 강기정 시장, 김영록 지사, 양향자 국회의원, 정철동 LG이노텍(주)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국가위기 극복 및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온라인을 통해 영상으로 진행됐으며, 4개 기관·기업은 지방소멸·에너지·기후변화 위기 극복과 함께 광주·전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임발활동 지원 등에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으로 인공지능과 에너지 등 지역의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자체, 기업 및 입법기관이 함께 손잡은 오늘 협약은 지역의 발전과 국가 전반의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중요한 지렛대로 함께하는 광주와 전남은 새로운 시대 도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정계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최고 권위자인 양향자 의원, 글로벌기업인 LG이노텍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대단히 기쁘고 든든하다"며, "국가 위기 극복과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광주와 전남이 상생의 힘으로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양향자 국회의원은 "LG이노텍의 차별화된 기술력과 광주·전남의 탄탄한 재생에너지 기반시설이 융합된다면 무한한 상승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기업들이 신규 투자 대상 국가나 지역을 정할 때 재생에너지 100% 여건을 우선 고려하고 있는 만큼, 오늘 협약식이 LG이노텍과 광주·전남의 상생 발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어 "광주·전남 첨단전략산업 육성은 물론 국가적 과제인 지방소멸, 에너지·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임발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철동 LG이노텍(주) 대표이사는 "오늘 체결하는 상생협력 업무협약이 앞으로 기업, 국회, 지방정부가 기후 변화 등 국가 위기 극복과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

## 전남도, 지식정보문화 10개 기업 투자협약



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민선 8기 상생 1호 협력사업으로 시·도 접경지인 첨단 1·3지구 일대에 '시스템반도체용 차세대 패키징 특화단지'를 조성해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 중심지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특화단지가 들어서면 지역 전반에 걸친 경제적 파급효과와 더불어 대한민국 반도체 핵심 요충지로서 공급망 안정화와 국가 경제안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달 27일 산업부에 특화단지 지정 신청서와 육성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앞으로 진행될 심사·평가에도 철저히 대응하는 등 시·도의 역량을 한 데 모아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김병수/기자

전라남도는 신규 창업하거나 전남 지역으로 이전한 지식정보문화 10개 기업과 서면 투자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나주와 목포, 순천에 들어선 10개 기업은 2026년까지 총 129억 원을 투자해 현재 일자리 183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에 등지를 든 (주)온소프트, (주)PTW코리아, (주)보라엔터테인먼트, (주)에스엠소프트, (주)비알이다, (주)의성 등 6개 기업은 협약에 따라 61억 원을 투자해 118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통해 소프트웨어 분야 지역 특화 비즈니스 모델 정착과 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주)엑스플랜트, (주)에이오코리아, (주)크레펜 등 3개 기업은 목표에 53억 원을 투자해 59명의 신규 일자리를 제공한다. 응용·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과 모바일 게임 서비스, 실감형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주)로컬엔컴퍼니는 순천에 15억 원을 투자해 지역에 특화된 영상 및 문화콘텐츠 개발에 집중한다. 오는 4월 1일 개막하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간에 관련 콘텐츠 기획과 상품 제작 유통에 나선다.

전남도는 앞선 민선 7기 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 성장 동력인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콘텐츠, 실감형 콘텐츠 등 지식정보문화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한다는 비전 아래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식정보문화산업 분야 보조금을 신설하고 지금까지 총 141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했다. 그중 76개 기업이 투자 실현을 통해 1천900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를 거뒀다.

유현호 전남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지식정보문화 분야는 타 산업에 비해 청년이 선호하는 콘텐츠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다"며 "앞으로 도내 기업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식정보문화기업도 고인 없이 전남을 선택하도록 적극적인 유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해명/기자

## '성숙한 반려 문화' 나주시, 반려동물 희망 동행 캠페인 29일 개최

전라남도 나주시가 반려동물 가구 증가에 따른 올바른 반려 문화 정립과 사회적 책임 의식 고취를 위한 민·관·학 합동 캠페인을 연다.

나주시는 오는 29일 빗가람호수공원 중앙무대 일원에서 '반려동물 희망 동행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와 동신대학교 반려동물학과, 동물병원, 놀다가(사회적협동조합) 등 관계 기관에서 분야별 실무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반려동물 재능기부를 펼칠 예정이다.

유기견 입양 홍보관(같이살개), 반려동물 무료 진료소(건강하게), 이벤트관(행복하게) 등 다양한 부스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입양홍보관에서는 나주시 유기동물 보호센터 내 보호 중인 유기동물과 교감의 장을 마련해 입양 절차 홍보와 현장 입양 등을 진행한다.

관내 동물병원에서는 재능기부를 통해 반려동물 무료 진료소를 운영한다. 반려동물 성향·습관·행동 교정,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응급처치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동물보호법' 개정사항, 펫티

켓(Pettiquette), 유기동물 입양 절차 등 반려인과 비반려인, 반려동물 간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한다.

올해 4월 27일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 주요 개정사항은 '반려동물 소유자 관리 의무 강화', '민간 동물보호회 신고제 도입', '사육 포기 동물 지자체 인수',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모업 등록제에서 허가제 변경' 등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의식 강화에 중점을 뒀다.

시는 분기별 1회 이상 반려동물 행사 개최를 비롯해 반려견 동물등록, 실외 사육견·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등 동물 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 의무제에 따른 유기·유실동물 최소화, 입양문화 확산 등을 통해 사회적 비용 절감은 물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써가겠다"며 "이번 캠페인이 반려인과 비반려인 구분 없이 동물 보호, 복지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안/기자





# 경남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총력 대응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체계적 대응을 위한 '수산물안전담당' 신설

경남도는 올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예정됨에 따라 도내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올해 1월 해양항만과에 수산물안전담당을 신설하는 등 행정 역할을 결집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지난 2021년 9월 '수산물안전관리센터'를 건립해 방사능 분석장비 확충(1대→4대) 및 분석 전문 인력을 증원(1명→3명)하여 생산단계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량을 대폭 확대(연 300건→1,000건)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매주 도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따른 도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촘촘하고 체계적인

안전감시망 구축을 위해 해양수산부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도내 해역의 해양방사성물질 조사정점 추가를 건의하여 기존 5개소에서 올해부터 8개소로 확대됐다.

또한 출하단계에서 방사능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신규사업으로 수협 위판장 10개소에 휴대용 방사능 측정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20년 11월부터 한일해협 인접 연안 5개 시도(경남, 부산, 울산, 전남, 제주)와 해양방류 공동 대응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 중이며, 지난해 11월에는 경남도 주관으로 해양수산부 관계자까지 참여한 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앙정부에 지자체 의견을 전달하는 등 오염수 해양방류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향후 더욱더 촘촘한 방사능 감시망

구축을 위해 해양방사성물질 조사정점 추가(2개소) 및 위·공판장 방사능 검사장비 지원사업 확대를 해양수산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일본산 등 수입수산물에 대한 유통관리 강화를 위해 연중 상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과 함께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특별 점검을 연 4회로 확대하여 먹거리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성홍택 경남도 해양항만과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해수부, 연안 시도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촘촘한 방사능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방류에 대비한 수산물 소비 활성화, 어민 피해대책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재현기자

# 김해시, 사업용 대형차 밤샘주차 집중 단속

김해시는 사업용 대형화물·여객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사업용 화물차(1.5t 초과)와 전세버스 등 차고지를 위반해 밤샘주차하는 대형차량이며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화물 5일, 전세버스 3일) 또는 과징금(일반화물 20만원, 개인화물 10만원, 전세버스 20만원) 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2개조 단속반을 구성해 민원 다수발생지역을 중심으로 계도와

불시 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사업용 화물·여객차량의 경우 밤샘주차(새벽 0~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를 하는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등에만 주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주택단지 주변, 도로변, 공원 인근, 개발지구 택지 주변 등지 대형차량 불법 주차가 빈번해 사고위험, 통행불편, 주차난, 소

음, 공해 등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시 교통혁신과장은 "주민 불편 해소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인 수시 단속을 하겠다"며 "화물차 소유주, 운영법인 등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올해 1분기 사업용 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으로 607대를 적발해 계도하고 이 중 126대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료했다.

최광용기자

# 영천시, 산불예방 소각행위 집중단속 전개

영천시는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산불 발생 위험이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어 산림연접지(산림과 100미터 이내)는 물론 일체의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쓰레기·영농부산물 소각 및 논·밭두렁 소각 등이 지속적인 소각금지 홍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영천시는 2023년 3월부터 산림과 및 16개 읍·면·동을 중심으로 담당구역 내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산불감시원 115명과 시청공무원 1,200명으로 책임구역을 지정해 불법소각행위 집중 단속 및 산불예방 계도활동을 나서고 있다.

산림연접지 불법소각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연접지가 아니더라도 불법소각을 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부주의한 소각행위가 대형산불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산불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며 당부하는 한편 "최근 남부동 등 4개 읍·면에서 적발된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라고 밝혔다.

한반식기자

# 경산시 하양 꿈바우시장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 실시!

## 깨끗한 우리 동네 우리 손으로 함께 만들어요

하양읍(읍장 김정기)은 24일 하양 장날을 맞아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은 장날마다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불법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하양읍 전통시장의 환경을 정비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대상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비닐봉투에 담아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음식물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행위 ▲일반생활 쓰레기를 재활용품과 혼합해 배출하는 행위 등이다.

이외에도 시장 상인과 시민들의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유형별 쓰레기 배출 방법 및 무단투기 근절 예방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시장 8곳에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현수막을 게시했다.



김정기 하양읍장은 "쓰레기 무단투기는 자신의 양심을 버리는 일"이라며,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수시로 하양 꿈바우시장과 환경취약지

송광삼기자

# 광명시, 개학기 맞아 광명시옥외광고협회와 합동으로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광명시는 지난 23일 개학을 맞아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광명사거리 광명남초등학교와 철산동 광명복초·중·고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으로 불법광고물 정비를 실시했다.

이날 광명시청 가로정비과 공무원과 (사)경기도옥외광고협회 광명시지부(지부장 김영일) 소속 회원 및 직원 등 40여 명이 철산초등학교 외 11개소 및 노후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유동광고물과 간판 등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도 함께 추진했다.

'간판 정비 안내' 어깨띠를 두른 참가자들은 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위협

간판 정비 안내문을 배포했으며 노후 및 훼손이 심각하여 추락 사고 등의 위험이 있는 간판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영업주에게 신속히 보완 및 개선하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학생들에게 유해한 선정적 전단지, 벽보 등 불법 유해광고물과 시민 보호 시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을 중점 단속했다.

김영일 경기도옥외광고협회 광명시지부장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광명시와 옥외광고협회가 합동으로 불법광고물 등의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회 회원들과 불법광고물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정비를 통해 시정되지 않고 반복되는 점포주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하도록 유도하고 미이행 시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불법광고물 일제 점검을 통해 학생들이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학업에 더욱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시는 앞으로도 취약 시간대 야간 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또한 태풍 대비 안전 점검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윤용민기자

**유형 혁신**  
'올바른 유통위원회, 출범을 통한 유통 구조 혁신과 함께 수급예측 정보시스템 구축 농협물 경쟁력 강화로 농 축산물 유통 대변화

**디지털 혁신**  
농업인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통합 플랫폼 개발과 디지털 농업 진흥부서 신설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 농촌 자활화 등 디지털농업 강국 실현

**조직문화 혁신**  
조직 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과 '경청'을 실천하고 창의적 생각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소통하는 유연한 조직문화 정착

# 부산시, 봄철 안전사고 예방 시내·마을버스 합동 점검 실시

## 점검 결과 차량안전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징금(과태료),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실시

부산시는 봄철 이용객 증가에 따라 시내·마을버스 이용 승객들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시내·마을버스 운행업체 대상으로 안전관리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시는 오늘(27일)부터 오는 5월 10일까지 관할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함께 관내 시내버스 22개 업체 1,514대 대상 운송사업체 차고지를 방문해 안전기준 준수사항 등 합동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내일(28일)부터 오는 5월 9일까지는 관할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마을버스조합이 함께 관내 마을버스 38개 업체 281대를 대상으로 차고지 및 기·종점 현장을 방문해 자동차 안전관리 상태 등을 점검한다.

점검내용은 ▲등화장치 작동, 엔진룸 누유 등 차량 안전관리 상태 ▲타이어마모 등 관리 상태 ▲차량 실내 의자 파손, 위생·청소 상태 ▲실내 소화기 및 비상망치 비치 및 관리상태 등이다.

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시의 안전점검에 대비해 안전장치 정비, 노선안내도 부착물 정비 등 사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점검 일정 등을 사전 고지할 계획이다.

정임수 부산시 교통국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시내·마을버스



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또한 운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수시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에는 현재 37개 업체

2,551대(시내 2,517대, 한정면허 34대)의 시내버스와 61개 업체 571대의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이용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송종진기자

# 강원도, K-water 본사 찾아 '강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현안 논의

## 기후위기 시대에 산림의 역할을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로 선보일 예정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는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주행사장의 주요 전시관인 푸른지구관(주제영상관)을 몰입형 미디어아트로 구성하여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푸른지구관은 강원세계산림엑스포 5개의 전시관(푸른지구관, 산림평화관, 문화유산관, 휴양치유관, 산업교류관) 중 주제 영상을 상영하는 전시관으로, '산림의 과거, 현재, 미래와 기후위기 시대의 유일한 해법을 산림에서 찾는다'라는 주제로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최신 영상기술 기법을 활용한 실감형 미디어아트로 조성한다.

전시관의 전체 규모는 1,200㎡의 (30m×40m)로, 주제영상을 상영할 스크린은 국내 비상설 전시관 중 가장 큰 규모인 높이 6m, 길이 70m의 초대형 크기로 설치할 예정이다. 최근 전시기법으로 미디어아트 전시가 고도 융합한 영상을 통해 관람객의 눈을 한시도 땔 수 없게 만들 예정이다.

전시관의 전체 규모는 1,200㎡의 (30m×40m)로, 주제영상을 상영할 스크린은 국내 비상설 전시관 중 가장 큰 규모인 높이 6m, 길이 70m의 초대형 크기로 설치할 예정이다. 최근 전시기법으로 미디어아트 전시가 고도 융합한 영상을 통해 관람객의 눈을 한시도 땔 수 없게 만들 예정이다.

# 원주시, 역대 최대 규모 "희망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개최



원주시가 역대 최대 규모로 "희망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개최한다. 원주시와 북부지방산림청은 제78회 식목일을 맞아 오는 30일 원주시 댜신공원앞 앞 절음의 광장에서 "희망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공동 개최한다.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4년 만에 재개한다고 밝혔다. 원주시 산림조합과 조경협의회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탄소흡수원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및 기후변화 대응에 큰 역할을 하는 나무를 시민들이 직접 심고 가꿀 수 있도록 함께 나눔으로써 나무와 숲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 1인당 9그루씩 선착순 무료 배부

가 높은 대추나무, 매실나무, 복숭아나무, 자두나무, 살구나무 등 총 16,400여 본의 묘목을 1인당 9그루씩 선착순으로 무료 배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시민들이 기다리는 동안 지루하지 않게 원주시립교향악단의 식전공연과 아랑고고장구, 풍물단, 색소폰 공연을 준비했다.

아울러, 장시간 기다리는 시민들을 위해 의자 250개와 함께 쉼터도 마련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무를 심고 가꾸 나무의 가치와 숲의 소중함을 새롭게 인식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미래 세대를 위해 나무식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 도시 전체를 나무 동산으로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김정환기자

# 박경귀 아산시장, 2023년 다섯 번째 '아산형통'

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 24일 올해 다섯 번째 '아산형통'을 통해 시민들과 만났다.

이번 만남에서는 △전국남녀 궁도대회 지원 요청 △배방공수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건립 관련 건등 2건에 대한 면담이 진행됐다.

첫 면담에서 충무정 궁도 관계자들은 전국남녀 궁도대회 개최와 관련한 시 보조금 증액과 충무정 환경개선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박 시장은 "보조금 지원 규모는 사업계획 및 실적 등 내부 기준을 수립해 차등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다른 종목과의 형평에 맞게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충무정 정비에 대한 지원 방안과 함께 내년 성용 이순신 축제부터 궁도대회를 문화 행사로 개최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해당 부서에 지시했다.

이러한 부분이 향후 지역개발 방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과의 만남을 마친 박 시장은 "모든 행정은 언제나 시민의 관점에서 고민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아산형통이 이러한 행정의 기본 방향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며 더 나은 아산시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형통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기관·단체 포함) 누구나 방문, 전화, 아산시 누리집 열린시장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원호기자

# 제천시, 공직자와 ChatGPT로 미래행정 '큰그림'

제천시가 27일 신청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거대인공지능(ChatGPT)과 미래행정 전망'특강을 진행했다.

시는 'Chat GPT'를 비롯한 거대인공지능 기술 개요, 동향 등을 파악하고, 정부 정책과 연계한 행정 도입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이용수 총부대교수를 강사로 이 강의를 기획했다.

강의는 강사가 '챗GPT'와 대화하는 것에서 시작했다. 사소한 질문부터 몇날 며칠 고민해야 하는 부분까지 막힘없이 대답하는 것을 보며 현장에 있던 공무원들이 함께 탄성을 터뜨렸다.

정 국제청 사례, 스마트 거울로 수화를 인식해 답변하는 대전시 사례 등을 소개하며, 수동적이었던 기존 행정에서 주민의 요청 없이 행정청에서 먼저 행정서비스를 제안하는 '지능형 능동행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강을 통해 시 공직자들이 챗피터를 활용해 자료 분석, 정책분석, 한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살피고 미래를 그려볼 수 있었다"며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직자 디지털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 천안시, 청년정책 참여기구 '청정넷' 본격 홍보

천안시는 2023년 청년정책네트워크 '청정넷'의 운영 방향 및 월별 활동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청정넷 운영위원회를 지난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청정넷은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청년 대표 소통기구로, 이날 회의에는 청년담당관과 제2기 청정넷 임원진 10명이 참석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운영위원회 회의는 청정넷 장세현 위원장의 안건 소개에 이어 2023년 월별 운영계획 수립, 분과별 정책제안 프로젝트 진행, 워크숍 추진 등의 안건을 본격 논의했다.

또한 천안시가 추진하는 4대 분야 70개의 청년 사업과 오는 5월 개최되는 '천안시 대학 어울림 페스티벌'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제안과 시정 참여를 독려했다.

장세현 위원장은 "임원진들의 열정 덕분에 올해 첫 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며, "청정넷의 핵심 역할이 정책 제안인 만큼 천안시 청년정책 발전을 위해 실용성 있는 정책들을 제안하고 실현하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제안한 정책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시는 계속해서 청정넷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활동가, 전문가와의 워크숍, 정책 제안,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최정근기자

# 화천군, 파로호 평화누리호 유람선 평화의 댐 구간 운항 재개

## 23km 파로호 뱃길 항해, 비수구미 등 호수 주변 비경 경유

'내륙의 바다'파로호에 출항을 알리는 유람선 평화누리호의 뱃고동이 울렸다.

평화누리호가 지난 25일 파로호 구간까지, 올해 첫 운항을 시작했다.

겨울잠에서 깨어난 평화누리호는 매일 간동면 구만리 선착장에서 오전 10시와 오후 2시, 평화의 댐 선착장에서 오전 11시30분, 오후 3시30분 출발한다.

지난해 7월 시범운항을 거쳐 8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평화누리호는 구만리에서 평화의 댐까지 편도 약 23km 구간 뱃길을 운항한다.

기존에 파로호를 운항하던 물빛누리호가 사람과 차량, 화물까지 수송했던 것에 비해 평화누리호는 세련된 내부 인테리어와 편의시설을 갖춘 42인승 유람선으로, 관광에 특화된 50톤 규모의 선박이다.

망망대해와 같은 쪽빛 파로호 위를 미끄러지듯 가로지르는 평화누리호에서는 옛 수도문교에서 모일문교가

지 조성된 '한뼘길', 청정 자연을 품은 에코스쿨, 그리고 원시림을 간직하고 있는 청정 비수구미 계곡 등 숨겨진 비경을 조망할 수 있다.

약 90여분 간 선상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평화의 댐 선착장에 내리면, 웅장한 평화의 댐 전경이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선착장 주변에는 평화의 댐 오토캠핑장이 자리잡고 있으며, 세계평화의 종공원, 국제평화아트파크 등 안보관광지도 둘러볼 수 있다.

평화누리호 이용요금은 만 8~12세는 편도 8,000원, 양복 1만5,000원이며 만 13세 이상은 편도 1만원, 양복 1만9,000원이다.

화천군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고령자 등은 이용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화천군 안보관광의 질적 향상과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최만식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참석... 영웅묘역 참배

이장우 대전시장은 24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서해 수호 전사자 묘역을 찾아 영웅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에서 전사한 용사를 기리고,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국토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3월 넷째 금요일로 지정하여 기념식을 열고 있다.

이날 기념식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전사자 유가족, 참전장병, 정당 대표, 정부·군 주요 인사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충탑 헌화 분향 및 묵념, 추모공연, 기념사, 기념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이 시장은 기념식을 마치고,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이은권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 등과 함께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합동묘역, 천안함 합동묘역 및 고 한주호 준위 묘역을 참배했다.

이장우 시장은 "묵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영웅들의 고귀한 뜻과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이어가겠다"고 말하며 조국을 위해 희생한 영웅들을 추모했다.

이어 이장우 시장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호국보훈파크 조성 예정지를 찾았다.

이 시장은 현충원역 환승주차장에서 호국보훈파크 조성 계획,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및 지하화 사업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계승하기 위한 국가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연



간 300백만 명이 찾는 대전현충원에 국내 유일의 보훈 문화복단지지를 조성해 보훈 가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며 호국보훈파크 조성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이 시장은 "전국에서 대전 현충원을 찾는 보훈가족의 이용 편의를 위해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과 지하화가 필요"하며, "최근 지정된 대전 나노·국가산업단지의 토지이용 효율화를 위해서도 호남고속도로 지선 지하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호국보훈파크와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은 윤석열 대통령 지역공약인 만큼, 대통령 공약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확답했다.

호국보훈파크는 구암동 현충원 일원에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해 보훈광장·공원, 보훈커뮤니티센터, 베테랑스빌리지, 문화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과 지하화는 도심을 통과하며 동서지역을 단절하고 도시성장 및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하고 있는 호남고속도로 대덕구 회덕JCT ~ 서구 서대전JCT 18.6KM 구간을 기존 4차선에서 6~8 차선으로 확대하고 일부 구간(4.3Km)의 지하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김원호기자

### 대전시, 방산벤처기업육성 및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모집

국방혁신 기술이전 지원 등 3개 분야, 10개사 내외,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대전시는 세계 일류 방산 경제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대전테크노파크, 국방과학연구소, 육군군사령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산벤처기업육성 및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분야는 ▲국방혁신 기술이전 및 사업화(1억 원) ▲혁신 기술 적용 방산 제품 개발 사업(1.5억 원) ▲국방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육성 사업(1.5억 원) 등 총 3개 분야이다.

지원사업비 최대 5천만 원이며, 지원기업은 10개사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며, 지원사업비는 사업이 종료된 후 최종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대전 소재 국방 관련 중소벤처기업이며, 국방시장 신규진입 희망기업을 포함한다. 사업간 중

복지원도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 7일간이며, 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사업관리정보시스템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테크노파크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한신희 전략추진기획실장은 "대전시의 우수한 연구개발 인프라와 기술역량을 활용하여 방산 중견기업 대기업을 군이 필요로 하는 핵심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 경기도, 클라우드펀딩으로 새싹기업(스타트업) 성장 촉진

### '2023년 클라우드펀딩 연계 스타트업 지원사업' 공모 진행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새싹기업(스타트업)의 민간 투자유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023 클라우드펀딩 연계 스타트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불특정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대중투자(클라우드펀딩)' 방식을 통해, 새싹기업이 신제품을 출시하기 전 소비자들의 반응과 시장성을 검증하고 민간 주도형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사업대상은 경기도 소재 7년 미만 기술기반 창업기업으로, 올해 총 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50여개 새싹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기업이 발행하는 증권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는 '증권형(투자형)' 10개사 ▲제품을 제공해 자

금을 조달하는 '후원형' 30개사 ▲해외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형' 10개사 등 총 50개사를 선발할 계획이다.

이들 기업에는 대중투자(클라우드펀딩) 플랫폼 등록을 위한 중개수수료, 동영상과 투자페이지 제작비, 광고비 등의 비용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투자유치 역량 강화와 투자 성공률을 높이는 차원에서 유형별 실무교육과 1:1 컨설팅 등 지원효과 확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또한 기존에 증권형 투자(펀딩) 성공기업에만 지원하던 사업화 자금 지원 후원형, 글로벌형 투자(펀딩)에 성공한 기업까지 확대한다. 증권형은 10개사 내외 5천만 원 이내, 후원형과 글로벌형은 5개사 내외로 2천만

원 이내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는 51개사를 지원, 투자자 1만213명을 모집해 27억8,200만 원의 투자 실적을 기록했다. 이 중 증권형에 도전한 기업 중 9개사가 성공해 436명의 투자자로부터 15억3,700만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했다.

김평원 도 벤처스타트업과장은 "도약 준비를 마친 초기 새싹기업이 자금을 확보하고 시장진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망한 기업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확장 기회를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청은 다음 달 14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경기스타트업플랫폼에서 확인하거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육성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혜영/기자

2023년 경기도 클라우드펀딩 연계 스타트업 지원사업 클라우드펀딩 등록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3.3.27(화) ~ 2023.4.14(금) 18:00까지 모집!

모집대상: 클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 조달을 희망하는 도내 소재 중소기업 창업기업

지원내용: 클라우드펀딩 플랫폼 등록 지원금, 동영상 및 투자페이지 제작비, 광고비 등

지원분야: 증권형(투자형) 10개사, 후원형 30개사, 글로벌형 10개사

신청기간: 2023.3.27(화) ~ 2023.4.14(금) 18:00까지

신청처: 경기스타트업플랫폼 (www.gsp.or.kr) 운영팀

문의: 경기스타트업육성팀 (031-269-6092)

### 인천연구원, '인천 미래 경제·산업 발전 방향 시민공청회' 개최

인천광역시와 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은 2023년 3월 28일 오후 2시 30분,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천 미래 경제·산업 발전 방향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향후 인천시 전략산업 육성과 관련한 경제 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중점 육성 전략산업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인천연구원은 2022년 「인천 미래 경제·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를 통해 인천시의 경제·산업 분야 현황과 과제 검토하고, 향후 혁신성장을 주도할 13개 전략산업 후보군의 성장 가능성을 검토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인천연구원 서봉만 연구위원은 "인천 미래 경제·산업 발전계획 - 전략산업 후보군 유형별 특성과 육성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주요 전략산업 후보군을 6개 유형으로 나누고 육성방안을 제시한다. 김일 인천경영자총협회 사무국장, 김청우 인천일보 경제부장, 김승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류윤기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인천광역시와 인천연구원은 시민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전략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인천연구원 이용식 원장은 "이번 공청회는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혁신성장을 주도할 신(新)전략산업 육성 계획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중요한 과정이며, 인천시 차원에서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남/기자

### 경북도, 중소기업 제품디자인·브랜드개발 지원에 팔걸어...

### 제품디자인 최대 3000만원, 브랜드개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경북도는 3월 27일부터 4월 21일까지 '제품디자인·브랜드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경북도가 추진하고 대구 경북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디자인산업 육성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체 디자인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디자인 전문회사를 활용해 제품, 브랜드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 인지도 상승과 매출 향상을 돕고자 한다.

디자인의 경우 트렌드에 민감한 분야로 제품 콘셉트, 외형디자인 등의 주기적 개선을 위해 분야별로 지속적인 디자인 지원이 필요하다.

신규·기존 제품디자인 개발 및 개선을 위한 제품디자인은 기업 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 BI개발과 브랜드 적용 패키지 등 디자인을 도와 주는 브랜드 개발은 최대 2000만원까지 개발비용의 9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사업은 총 10개 기업(제품디자인 4, 브랜드디자인 6)을 모집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경북 중소기업(사업자등록증 기준)은 경북·대구 지역 디자인 전문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1개 과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디자인통합플랫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최종 과제는 선정평가(상품성, 수행능력, 사업화 가능성 등 평가)를 통해 선발되며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 또는 대구경북디자인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경북도의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은 6개 세부사업에 284개 기업을 지원했다. 지원경쟁률은 평균 3.3:1, 기업 만족도 95%로 도내 중소기업의 수요도와 만족도가 높았으며, 전체 수혜기업의 매출은 993억 원 증가(20.7%)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석 경북도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브랜드 가치를 상승시켜 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삼척시, 석회석 신개념 산업화 추진

2023년 2월부터 삼척시 석회석 산업화 추진 기본계획 용역 추진 중

삼척시는 민선8기 공약사항의 일환으로 석회석 신개념 산업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2,000억 원에 달하는 지역경제 효과 달성을 목표로 '삼척시 석회석 신소재 산업화'를 추진한다.

현재 삼척 지역 광산에서 채굴하는 석회석은 광산에서 1차 파쇄하여 시멘트, 제철·제강, 발전소 등에 파쇄석회석으로만 판매되고 있다. 이에 석회석을 활용한 시멘트용, 발전용, 제철용(제강, 소결용) 및 생석회, 소석회, 경질탄산칼슘, 중질탄산칼슘 등 고부가가치의 석회석 신소재 산업으로의 육성 필요성이 대두되어왔다.

이를 위해 시는 2022년 10월에 광산업체 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2023년 2월부터 '삼척시 석회석 산업화 추진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이다. 용역을 통해 삼척시 지역에서 채굴되는 석회석 광물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신소재산업의 석회석 원료 특성

을 비교 분석하여 삼척시 석회석을 활용한 석회석 신소재산업 육성(신설, 이전유치 등) 가능성을 분석해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삼척시 석회석산업(광업, 신소재산업 등)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석회석 산업화 추진 기본계획 용역을 마무리하고, 향후 용역 결과 설명회 개최, 관련 조례 제정, 한국광업협회·석회석조합 등 유관기관 방문 협의 등 석회석 산업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석회석산업 육성을 통해 석회석광물 고부가가치화로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석회석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정주 여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 화성시-식품진흥원, '화성 시그니처 농특산물 가공식품 개발' 협약체결

화성시가 24일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을 위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화성시 시그니처 농특산물 가공식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화성시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화성시 시그니처 농특산물 가공식품 개발 및 출시 ▲기술지원을 통한 제품 상품화 및 경쟁력 강화 ▲화성시 농특산물 소비활성화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향후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시설장비와 전문 인력을 활용해 가공식품 개발과 시장출시를 지원하며, 최종 제품은 2024년 하반기 출시 될 예정

이다. 화성시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역 농특산물인 수향미, 포도를 주원료로 가공식품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농산물 고부가가치화와 농가소득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규 농식품유통과장은 "화성시 시그니처 농특산물 가공식품은 향후 다양한 판로를 통해 소비자의 입맛을 만족시키고 농업인에게는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화성시의 대표 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특산물의 부가가치 창출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 이재용 회장, 중국 텐진(天津) 찾아 임직원 격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4일 중국 텐진에 위치한 삼성전기 사업장을 방문해 전자부품 생산 공장을 점검하고 텐진 지역에서 근무하는 삼성 계열사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회장은 지난 2020년 5월 중국 산시성 삼성전기 시안 반도체 사업장 방문 이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중국을 찾지 못했으나, 이번에 약 3년 만에 중국 내 삼성 사업장을 방문했다.

이재용 회장은 이날 2021년 가동을 시작한 삼성전기 텐진 MLCC 생산 라인을 살펴보고,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 회장은 방문한 삼성전기 텐진 공장을 부산사업장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 IT·전장용 MLCC를 공급하는 주요 생산 거점 중 한 곳이다.

삼성전기는 1988년부터 MLCC를 개발·생산해 왔으며, 전기가 및 자율주행 기술 발달과 더불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장용 MLCC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 텐진 MLCC 2공장을 건설했다.

이재용 회장은 2020년과 2022년에는 삼성전기 부산사업장을 방문해 MLCC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전장용 MLCC 등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삼성전은 부산을 MLCC용 핵심 소재 연구개발 및 생산을 주도하는 「첨단 MLCC 특화 지역」으로 육성하는 한편, 텐진은 전장용 MLCC 주력 생산 거점으로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공장 방문에 앞서 이재용 회장은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소속 텐진지역 주재원 및 중국 법인장들을 만나 해외 근무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격려했다.

최근 수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국과 한국 간 인적·물적 교류가 제한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텐진을 비롯한 중국 지역 주재원 및 임직원들은 공급망 차질 최소화에 주력해 왔다. 텐진에는 삼성전기 MLCC·카메라



모듈 생산 공장, 삼성디스플레이 스마트폰용 OLED 모듈 생산 공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삼성SDI는 중국 텐진에서 스마트 기기·전기차 등에 사용되는 2차 전지를 생산하고 있다. 최만식/기자

# '꿈의 다리' 어린이작가 장송호, 가수 꿈 이뤄 순천 2023 정원박람회 명예 홍보대사로!

## 순천의 인물, 순천을 알리는 데 제대로 앞장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가 지난 24일,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트로트 가수 장송호를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장송호(20세)는 순천 출신으로, 2022년 12월부터 방영되어 인기리에 마무리 된 '미스트롯2-새로운 전설의 시작'에 대학부로 참가하여 최종 15위의 성적을 거두며 트로트계의 아이돌로 인기 급부상 중인 가수이다.

이날 노관규 이사장(순천시장)은 장송호를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하며 "트로트 아이돌을 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돼 기쁘며, 아이들을 넘어 트로트 황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2023정원박람회는 전 세계에 탄소중립 모델, 사람이 가장 행복한 도시의 모델을 보여주는 장으로 '일류순천'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인 이번 박람회를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장송호는 "순천에서 인물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순천에서 인물 하나 난 것 같으니 앞으로 제대로 순



천을 널리 널리 알려보겠다"며 외모만큼 깔끔한 소감을 밝혔다.

한편 2013년 10살의 나이로 활동을 시작하며 트로트 신동으로 관심을 모았던 장송호는 당시 초등학교 시절 꿈의 다리에 작가로 참여하여 가수가 되고 싶은 소망을 담은 그림 작품을 출품하여 현재까지 국가정원 내 꿈의

다리에 전시되어 있다.

2023정원박람회는 3월 31일 동천수상특설 무대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 31일까지 7개월 동안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도심 일원에서 개최된다.

김병수/기자

#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작가, 담양군에 고향사랑기부금 전달

담양 출신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작가가 담양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하며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이이남 작가는 담양에서 태어나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박사 과정을 거쳤으며, 명화를 차용한 디지털 아트 등으로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미디어 아티스트이다.

벨기에, 중국, 독일 등 국내외에서 개인전을 열고 800회 이상의 그룹전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자신의 지평을 넓히고 있으며 관객들이 작품 앞에서 5분 이상 머물러 '5분의 미학'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다.

이 작가는 "담양은 태어나서 자란 동네일 뿐만 아니라 작업 과정에서 많은 영감을 받는 마음의 고향이기도 하다"며,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담양 발전에 힘을 보태게 되어 기쁘다"고 기탁 소감을 전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이이남 작가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며, "담양군을 빛내주는 이 작가의 앞으로의 행보를 늘 응원하겠다"고 감사사를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자는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오홍곤/기자

# 방세환 광주시장, 직장운동경기부 복싱팀 격려



방세환 광주시장은 지난 23일 시장실에서 광주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복싱팀을 격려했다.

광주시청 복싱팀은 지난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김해문화체육관에서 열린 '2023 대한복싱협회장배 전국 중별복싱대회'에 출전해 2개 체급에서 입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선현욱 선수는 남자일반부 -86kg에서 2위를 차지해 은메달을 획득했으며 강민수 선수도 남자일반부 -67kg에서 3위로 입상하며 값진 동메달을 획득했다.

방 시장은 "좋은 성적을 거둔 복싱팀 선수들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광주시 위상을 높이는 데 힘써달라"며 "시에서도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청 복싱팀은 홍상표 감독의 지도 아래 강민수, 박상준, 선현욱, 박승민, 정호철 등 총 5명의 선수로 구성됐으며 이 중 4명은 올해 새로 영입한 선수로 앞으로의 경기 성적이 더욱 기대되고 있다.

박강호/기자

# 문주현 엠디엠그룹 회장, 장흥군에 3억 2천만원 기부

## 문주현 회장 "고향 후배들에게 도움주기 위해 기부 결정"

문주현 엠디엠그룹 회장이 24일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3억 2000만원을 기부했다.

장학금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에 걸쳐 연 8000만원씩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올해 기탁된 장학금 8000만원은 문주장학생 전형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각 20명 학생에게 20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문 회장은 이날 장흥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도 함께 전달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문주현 회장은 장흥군 관산을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평소 애郷심이 깊어 군민 의료봉사, 장학금 지원 등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왔다.

2016년에는 '장흥 국제통합의학박람회'위원으로 참여해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이끌었다.

2022년에는 민선8기 장흥군 첫 명예군수에 위촉되어 고향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군은 이번 기탁으로 인재육성장학금의 활용 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내



다보고 있다.

문주현 회장은 "문주장학재단을 운영하면서 고향 후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다가 이번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며, "4년간 공부하는 학생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 이사장은 "고향을 잊지 않고 후학 양성을 위해 기꺼이 큰 금액을 기탁해주시는 문주현 회장께 감사드립니다"며, "인재육성장학금이 의미있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박재원/기자

# 개그맨 윤형빈, 밀양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인기 개그맨 윤형빈씨가 24일 밀양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에 동참했다. 윤형빈씨는 2005년 K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으며, 종합격투기 프로선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윤형빈씨는 "밀양의 유명한 특산물인 얼음골 사과를 맛보고서 밀양시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면서 "이번 기부를 계기로 밀양시를 더 많이 알게 됐고, 2023년 밀양방문의 해를 맞아 유명 관광지들도 직접 방문해보고 싶다"며 밀양시에 대한 애정을 밝혔다.

이미화 세무과장은 "밀양시에 대한 많은 관심을 고향사랑기부로 표현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밀양시와 소중한 인연을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인 최대 500만 원까지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고, 기부금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방법은 종합정보시스템 고향사랑e음(운영시간 07:00 ~ 23:00)으로 온라인 기부가 가능하며, 전국 NH농협 창구를 통해 대면접수가 가능하다.



▲ 개그맨 윤형빈씨가 24일 밀양시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했다. (왼쪽부터 이상훈 농협밀양시지부장, 개그맨 윤형빈, 이미화 밀양시청 세무과장)

최덕수/기자

# 서울시-에큐온-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에너지취약계층 400가구 지원

서울시는 3월 23일 오후 14시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에큐온캐피탈과 에큐온저축은행,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민·관협력 에너지취약가구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에큐온은 1억 2천만 원을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에 기부하며, 에너지취약계층 총 400가구에 친환경보일러, 고효율 발열, 고효율 엘이디(LED)조명 교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에큐온캐피탈과 에큐온저축은행은 각각 친환경보일러 교체지원금 3천만 원, 고효율 발열 교체지원금 1천 5백만 원, 고효율 엘이디(LED)조명 교체지원금 1천 5백만 원, 총 1억 2천만 원을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에 기부한다.

형광등이나 백열등을 사용하는 100가구에 고효율 엘이디(LED) 조명을 설치하고, 오래되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낮은 발열을 사용하는 100가구에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의 발열을 지원해준다.

이번 협약은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하는 저소득층에 6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서울시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 시는 에큐온의 기부로 취약계층 200가

구에 본인 부담금 없이 친환경보일러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는 데 평균 90만 원가량이 소요되며, 서울시 보조금 60만 원을 제외하면 저소득층이 부담하는 금액은 평균 30만 원이다. 에큐온이 6천만 원을 기부해 취약계층 본인 부담금 없이 200가구에 친환경보일러를 보급할 예정이다.

자치구 환경과를 통해 지원대상을 모집할 예정이며 저소득층 중 특히 어려운 세대를 선정할 계획이다. 3월 중 100가구, 10월 중 100가구를 지원한다.

협약식에는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길광하 에큐온캐피탈 사회공헌운영위원장, 정영석 에큐온저축은행 사회공헌운영위원장, 김현훈 서울시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한다.

에큐온은 2021년과 2022년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에 총 2억원 상당의 친환경보일러, 고효율 발열, 고효율 엘이디(LED) 조명 교체 비용을 기부하는 등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다.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는 서울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운영단체로 에너지취약계층

을 위한 주거 에너지효율화, 고효율 제품지원, 폭염.한파 긴급 지원, 에너지 생산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취약계층을 돕고 싶다면 계좌이체나 휴대폰 문자전송(건당 2천 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회원은 생활 속 에너지를 절약해 쌓은 마일리지 기부도 가능하다.

김현훈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장은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에너지취약가구의 에너지 사용 부담이 더욱 커진 요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으로 공공요금 절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에너지복지사업을 지원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에큐온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앞으로도 취약가구에 대한 복지지원과 탄소 배출 감축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에너지복지사업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최근 급격히 인상된 난방비와 전기요금 부담은 에너지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올 것"이라며 "에큐온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에 감사드리며, 서울시 역시 올해도 더 많은 에너지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 대구생활문화센터, 동호회가 직접 기획하고 출연하는 기획공연 프로그램 '생동데이' 개최

####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저녁 정기공연 운영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생활문화센터가 생활문화동호회 기획공연 프로그램 '생동데이'를 오는 3월 29일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대구생활문화센터 어울림홀에서 개최한다.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대구생활문화센터는 3월~12월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생활문화동호회 기획 프로그램 '생동데이'를 선보인다.

'생동데이'는 생활문화동호회가 직접 기획한 공연을 발굴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대구생활문화센터가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나의 삶 나의 무대'라는 자전적이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통해 동호회 각자만의 개성 있는 무대를 직접 기획해 매력을 발산한다.

공연은 밴드, 시낭송, 연극, 트럼펫 등 총 8팀의 생활문화동호회가 전문 기획자 2인(이상규, 장선주)의 컨설팅을 받아 직접 무대 연출부터 출연까지 전 과정을 참여하게 된다.

특히 3월 29일에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군위군의 통합을 앞두고 아름다운 상생 발전과 문화적 정서 통합을 위해 군위관광문화재단 협력형 생활문화 지원단체인 문화예술그룹 우진의 초청공연이 펼쳐진다. 문화예술그룹 우진은 남녀노소 모두가 어우러질 수 있는 신명나는 국악한마당으로 생동데이의 첫 문을 연다.

이번 생동데이에 참여하게 된 생활문화동호회들은 "생동데이를 통해 우리 동호회가 직접 기획한 무대에 오를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 공연 관람을 오시는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박순태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본부 본부장은 "군위군 통합 첫해를 앞두고 문화적 교류를 위해 초청 공연을 마련했다. 이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대구시 군위군 시민 모두 생활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공연은 오는 3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매주 수요일 19시 30분부터 대구생활문화센터(대구 수성구 만촌로 153) 진행될 예정이며 특히 8월 23일과 12월 6일에는 공연에 참여한 동호회들이 연합해 새로운 형태의 기획공연을 준비하고 있어 기대를 모은다.

윤근수/기자



## 경기문화재단, 2023년도 경기도 장애예술 통합지원 공모 시행

### 2023년 경기도 장애예술 통합 지원사업 공모 진행 중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지난해 진행했던 '2022 경기도 장애예술인 전문예술교육사업'을 확장 및 통합하여 장애예술인의 활동 폭과 기회를 넓히고자 '2023년 경기도 장애예술 통합 지원' 공모사업을 시행한다.

도와 재단은 이번 공모를 통해 장애예술인의 예술교육 역량을 확장하고 더 많은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이 폭넓은 분야에서 전문예술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장애예술인(단체)의 예술적 성장 및 확장을 도모하는 다양한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이번 공모는 약 6억 8천만 원 규모로 ▲ 장애 예술인 전문예술 교육지원 ▲ 장애 예술인 전문예술 활동지원 ▲ 찾아가는 장애 예술 콘서트 등의 3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3월 24일부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으로 접수 진행되고 있으며,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해 4월 12일까지 20일간 운영된다.

## 속초시, 갈라콘서트『STORY OF THE MUSIC』개최!

### 28일부터 예매, 4월 14일 속초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려

속초시가 4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속초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2023년 기획공연 두 번째 작품으로 '갈라콘서트『STORY OF THE MUSIC』'을 개최한다.

관객들이 사랑하는 뮤지컬과 무대 뒤 에피소드로 꾸며지는 이번 공연은 크로스오버, 클래식, 뮤지컬 넘버 등 여러 장르의 음악을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으며 출연진이 전하는 노래 소개와 특별한 이야기들로 자연스럽게 관객들과 친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공연의 감동을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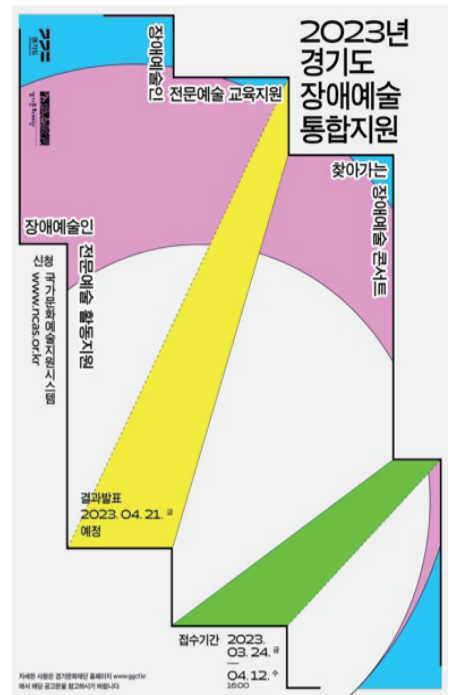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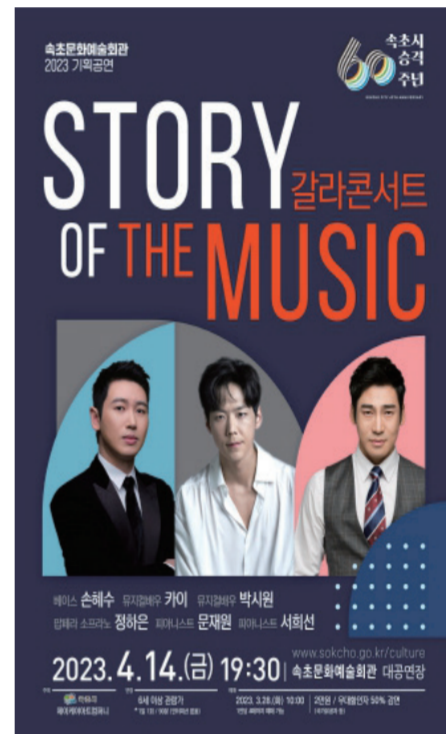
특히,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을 연기에 담아내며 폭발적인 성장으로 노래하는 뮤지컬배우 카이, 팬텀싱어 1~4 전시리즈 호랑이 심사위원으로 출연하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손혜수, 허스키한 목소리와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연기를 보여주는 박시원, 깊이 있는 보이스와 세련된 무대매너로 사랑받는 팝페라소프라노 정하은이 90분간 무대를 이어가며 피아니스트 문재원과 서희선의 연주로 완성도를 높인다.

본 공연 예매는 3. 28 10시부터 속초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1인당 최대 4장까지 가능하고, 관람료는 2만 원이다.

우대 할인자 등 자세한 사항은 속초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되며, 카카오톡에서 '속초문화예술회관'을 채널 추가하면 각종 기획 및 대관 공연, 공지 사항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등원/기자



## 제주시, 제16회 세계 자폐인의 날 '맞아 블루라이트 캠페인' 전개

### 제주시 청사 외벽

제주시는 '세계 자폐인의 날'을 기념해 제주시청 청사에 파란색 조명을 비추는 블루라이트 캠페인을 4월 1일부터 7일까지 전개한다고 밝혔다.

매년 4월 2일은 UN에서 지정한 '세계 자폐인의 날(Autism Awareness Day)'로, 자폐성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공감을 높여 자폐성 장애인과 가족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에 도움을 주고자 지정한 날이다.

블루라이트 캠페인은 전 세계 명소의 건물 외벽에 자폐성 장애인들이 가장 편안함을 느낀다는 파란빛을 밝힘으로써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촉구하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제주시에서는 4월 1일부터 7일간 시청 본관 및 별빛누리 공원에 파란색 조명을 비추 블루라이트 캠페인을 진행하며, 올해는 제주시의 랜드마크로 꼽히는 드림타워에서도 협조하여 4월 2일 당일 캠페인에 동참할 계획이다.

또한, 'Light It Up Blue'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제주시공식SNS를 활용해 블루라이트 행사를 홍보할 계획이다.

한명미 장애인복지과장은 "세계 자폐인의 날을 맞아 블루라이트 캠페인에 동참하여 자폐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독려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곽건기/기자

## 금천구 "환경을 배우고, 환경을 연극하다!"

### 4월 8일까지 환경유랑극단 참여 청소년 모집

금천구는 4월 8일까지 청소년의 환경교육과 문화·예술 역량 향상을 위한 '놀러와요! 환경유랑극단' 프로그램에 참여할 청소년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돼 추진하게 됐다.

'놀러와요! 환경유랑극단'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알리기 위한 창작극을 직접 제작해 공연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다.

전문 연극 극단에 기초적인 교육을 받고, 함께 연극을 제작하고 공연하는 경험을 하면서 청소년들이 연기에 대한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대해 생

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모집인원은 15명으로 금천구 초등학교 4~6학년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은 홍보 포스터 QR코드 접속 또는 독산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금천구 청소년이 환경 관련 창작연극을 경험하면서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키웠으면 좋겠다"라며, "또한 이를 알리기 위한 실천을 통해 청소년들의 역량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향신/기자

## 강원 고성문화재단, '생활문화 킷서비스' 원데이클래스 강사 모집

### 고성의 생활문화 활동가가 직접 주민을 만나며 생활문화 확산 도모

고성문화재단은 지난주 최종 선정된 '모두의 생활문화'의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생활문화 체감도 향상을 위한 '생활문화 킷서비스'를 진행한다.

생활문화 킷서비스는 생활문화 주체를 발굴, 원데이클래스를 통해 주민과 체험을 나누며 생활문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20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생활문화 킷서비스' 원데이클래스 강사

모집은 3월 30일 까지 접수가 가능하며, 공예, 미술, 음악, 문화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삶의 지식과 노하우를 1시간 내외로 수업할 수 있는 고성군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될 '생활문화 킷서비스'는 군민이 신청한 장소로 찾아가는 클래스와 수업이 가능한 공간으로 군민을 초대하는 클래스,

달출문화센터를 활용한 클래스로 구분된다.

활동에 따라 강사비가 지급되며 수업에 필요한 재료비는 별도로 지급된다.

문화도시 TF팀 관계자는 "생활문화 주체가 다양한 주민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장이 됐으면 좋겠고 일상 속 문화의 확대, 문화가 일상인 고성군민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 영양 들어다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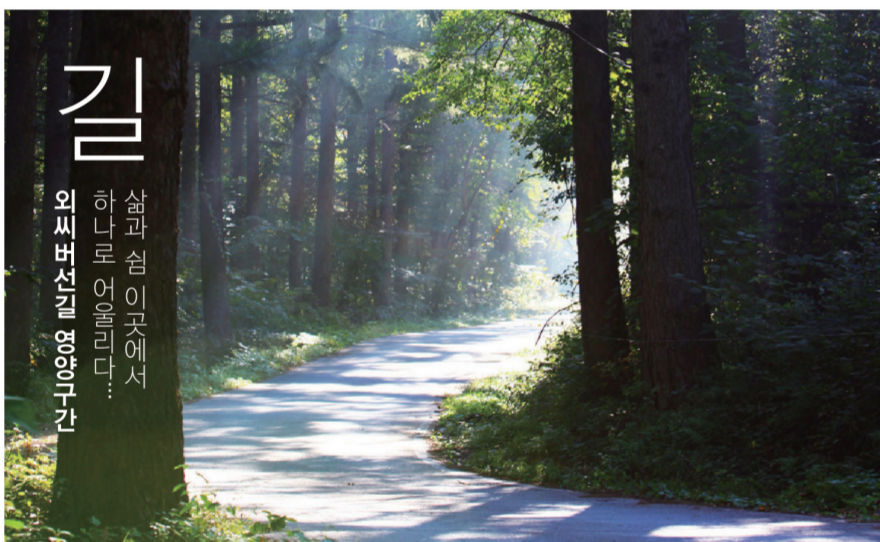
영양군  
YEONGYANG-GUN  
www.yyg.go.kr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 ZOOM

들어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아온 **영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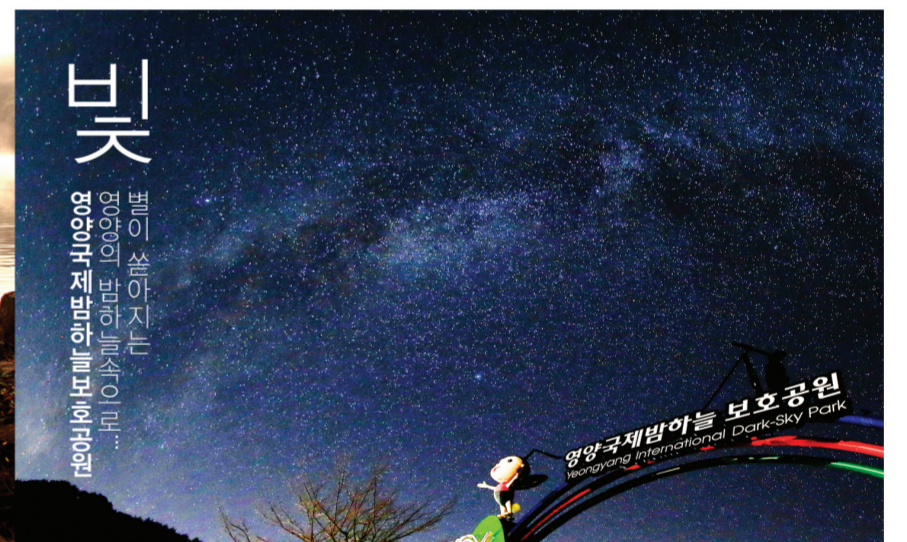
길

삶과 숨이곳에서  
아름답게 영예롭고...  
영양대표관광지 영양나들이



물

영양의 푸른빛과  
영양의 맑은 물...  
영양대표관광지 영양나들이



빛

별이 쏟아지는  
영양의 밤하늘...  
영양대표관광지 영양나들이



얼

시공간의 대가  
영양서식지  
영양대표관광지 영양나들이



맛

사백년 이어온  
반가의 레시피...  
장계향의 음식디미방



심

자연과 벗하던 선비의  
기품이 깃들다...  
영양연서정



숲

한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주실마을

##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 \_ 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침벽공원, 측백수림, 외씨버선길
- **영양의 역사** \_ 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_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생화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양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